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작 품 소 개 서

구 분	내 용
이야기 소재 (Motive)	<p>1950년 6월25일...대한민국의 운명을 뒤바꾼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전쟁 초기 북한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대한민국. 그러나 최후의 보루, 부산을 사수해내며 결국 전쟁의 향방을 뒤집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전쟁 초기 김일성은 부산의 중요성을 몰랐을까? 김일성은 전쟁발발과 동시에 부산을 점령 할 특수부대를 대규모로 해상으로 투입했었다. 그러나 대한해협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전투함 “백두산 함(pc-701)”에 의해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대한해협해전과 백두산 함. 과연 이들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p>
스토리 구성 (Plot)	<p>스토리는 백두산 함과 그 승조원들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쓰여 졌다. 1949년 미국 뉴저지의 지역신문 기자인 헤일리는 지역 경찰서에서 흥미로운 남자를 만나게 된다. 해군 정복을 입고 유치장 안에서 경찰서가 떠나가라 군가를 부르던 동양인 남자. 많은 사연을 간직한 것 같은 이 남자를 취재하기로 마음먹은 헤일리는 그 남자를 수소문 끝에 찾아내고 그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 신생독립국 대한민국에서 왔다는 그 남자 동국. 대한민국은 아직 작고 가난하여 자국을 지킬 전투함 한 척이 없어 미국에 전투함을 사려왔다는 그의 말. 그리고 그 전투함을 살 돈 조차도 없어서 군인들이 한푼 두푼 모은 돈을 가지고 이미 퇴역한 고물 배를 구입해서 수리하고 전투함으로 개조하고 있으며 수리할 비용조차 부족해서 장교들이 직접 배에서 먹고 자며 배를 수리하고 있다고 한다. 머나먼 미국 땅으로 날아와 조국을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는 동국과 그의 전우들에 대해서 재미교포3세인 헤일리는 알 수 없는 연민의 정과 감동을 느낀다. 또한 태평양전쟁에서 형을 잃고 그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동국은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헤일리를 통해 마음속 고통이 해소 되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동국과 그의 전우들의 노력 끝에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 함이 완성 되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동국과 그의 전우들 얼마 후 6.25가 발발하고 백두산 함에 출동명령이 내려지는데....</p>
캐릭터 또는 등장인물 소개	<p>※별지에 등장인물 소개</p>

인물소개

주인공1: 헤일리 장 (장 영자)

지역신문 기자 조부와 할머니의 하와이 이주,
그리고 부모님의 미국 본토 이주에 이어 뉴욕으로 와서 살고 있는 여자.
여성임에도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지 않고 극적으로 신문기자가 되었다.
그러나 인종차별로 인해 좌절하는 동생을 보면서
넘어설 수 없는 한계의 벽에 안타까워한다.
처음에 흥미로 접근했던 동국에 대해 알게 되면서
그의 내면을 알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연민과 사랑의 감정이 조금씩 나타나게 된다.

주인공2: 김 동 국

조선인으로 태어나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형과 함께 뛰어들어야 했던 인물.
태평양전쟁에서 전쟁의 참상과 형의 죽음 때문에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형의 죽음이 자신 때문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으로 살아가던 중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대한민국 해군에 입대하게 된다.
그리고 701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조금씩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시작
한다.

손원일: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로 초대 해군참모총장으로 나라 없는 슬픔을 겪어
본 인물.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조국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모습이 주위사람들로 하여금 왠지 모를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최 영 남 : 백두산함의 함장

대한민국 해군에 자부심이 넘치고 약간은 고집불통 같은 성격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순진한 남자이다.

가슴 속은 따뜻하고 의리가 넘치는 남자 백두산함의 함장
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결단력 있는 함장다운 함장이다.

이성호 : 김동국의 동료

다소 출랑대는 성격으로 주위에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다.
해군병학교 동기인 동국에게 라이벌의식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미국생활을 동고동락하며 동국과 둘도
없는 사이로 발전한다.

시놉시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1949년 미국 뉴저지의 거리 크리스마스로 넘쳐나는 거리에서 강도사건이 발생한다. 도망치는 강도를 붙잡는 헤일리의 동생 데이빗은 동양인이라는 모멸과 함께 오히려 강도로 몰려서 경찰서에 붙잡히게 된다.

지역신문의 기사를 맡고 있던 헤일리는 이런 동생을 대리러 경찰서에 오게 되고 거기서 해군정복을 입은 동양남자가 동생과 함께 유치장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유치장 안에서 고래고래 한국어로 군가를 부르는 남자를 보며 흥미를 느끼게 되고 다음날

기사거리를 찾기 위해 다시 경찰서로 가서 그의 신원을 파악한다.

수소문 끝에 해양대학교 구내식당에서 김치를 먹고 있는 어제의 그 남자 동국을 다시 만나게 되는 헤일리.

그리고 그에게서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여정들에 대해 듣게 된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제국군의 해군으로 형과

함께 강제 징집되어 전쟁에 뛰어들어야 했던 동국.

태평양의 바다 한가운데서 그리고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동국은

이루 말할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그리고 전쟁 속에서 형이 죽는 모습을 보며 비겁한 겁쟁이처럼 숨어있고 자기의 목숨하나 지킬 수 없었던

자신 때문에 형이 죽게 되는 모습을 목격하는 동국은 큰 충격을 받는다.

전쟁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동국.

어느새 전쟁은 끝나고 조선은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고향 부산으로 돌아온 동국은 다시 홀어머니와 어린 동생에게로 돌아가 예전과 같은 삶을 누리려고 한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도 잠시

지난 전쟁에서의 기억은 끊임없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며 그를 괴롭힌다.

결국 더 이상 이렇게 살수는 없다고 판단한 동국은 과거에 자신을 바꿔버린

바다로 다시 가기 위해 새롭게 탄생하는 대한민국 해군에 지원하게 된다.

해군사관학교에서 여러 훈련을 하며 해군장교로 거듭나는 동국.

이 당시 대한민국 해군은 큰 고민에 빠져있었다.

적과 싸울 수 있는 전투함을 가지지 못한 해군,

배 없는 해군이라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더군다나 배를 구입하려 해도 돈 없는 약소국의 군대로 태어나 함정을 구입할 예산조차 지급받지 못했다. 나라를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는 군대...

해군참모총장 손원일은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해군이 직접 돈을 모아 함정을 구입하기로 한다. 세계역사에 유래가 없는 일이었다.

나라없는 서러움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는 국민과 해군장병들은 너도나도 흔쾌히 돈을 모아 해군함정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구입한 함정을 미국에서 국내로 직접 들여오기 위해 15인의 해군 장교로 구성된 인수단이 꾸려진다. 인수단에 포함되는 동국과 해군사관학교 당시의 동국의 친구였던 성호 그리고 초대 백두산함의 함장이 되는 최영남까지 15인의 인수단이 미국으로 떠나게 된다. 동국에게는 배를 찾는 것 뿐 만이 아닌 잃어버린 내면 속의 뭔가를 찾아나서는 여행의 막이 오른다.

도착한 미국의 휘황찬란한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하는 인수단 장교들. 그렇게 미국에 대한 기대 이상의 놀라움과 함께 그들의 미국 생활이 시작된다. 그리고 기대이상의 놀라운 모습의 훗날 백두산 함으로 태어날 화이트헤드 소위 호를 만나게 되는 인수단 장교들.

퇴역한지 몇 년이 지나 고철인 상태로 방치된 배를 보며 많은 실망을 하게 된다. 하지만 수리하면 달라질 것이라는 그들의 기대를 꺾는 너무나도 비싼 수리비용... 결국 자신들이 직접 배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배를 고치기로 마음먹는다. 매일 배를 고치며 배에서 먹고 자는 미국생활. 그리고 동국과 성호는 최영남의 지시아래 미국 해양대학교에서 백두산함의 함포인 3인치포의 운용 법을 배워오라는 지시를 받는다. 이로 인해 시작되는 고된 해양대학교에서의 훈련 하지만 즐겁게 훈련에 임하는 동국과 성호. 그리고 어느새 익숙해져가는 미국의 생활. 이렇게 하루하루 보람차게 보내던 미국생활을 하던 동국은 어느 날 김치재료를 사러 시내에 나갔다가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게 된다. 난투극 끝에 경찰서로 끌려오는 동국은 인종차별과 힘없는 나라의 군인으로 태어난 억울함 등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알 수 없는 울분과 화를 군가를 고래고래 소리치며 쏟아낸다. 그렇게 헤일리와 첫 만남을 시작하는 동국.

헤일리는 그 날부터 인수단의 이야기를 기사로 쓰기 시작한다. 재미교포 3세인 헤일리는 여기까지 날아온 동국을 보며 그가 사실은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에게서 연민의 정을 느낀다. 그리고 현실을 피하지 않고 맞서려는 동국의 용기에 조금 감동하게 된다. 동국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웃는 헤일리를 보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신보다 멋진 헤일리에게 끌림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녀처럼 밝게 살고 싶다는 기대에 부풀게 된다. 그런 마음이 커져갈수록 그녀에게 사랑의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는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다. 그러나 어느새 백두산 함도 완성이 되고 떠날 시간은 다가온다.

그렇게 서로 이별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는 동국.
미국에서의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된다.

한국으로 돌아온 백두산 함은 연일 뉴스의 일면을 장식한다.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전투함 , 온 국민들도 그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등 일약스타가 된다.
그러던 어느 날 1950년 6월25일의 아침이 밝아오고 세상은 한가로운 일요일을 보내고 있는 그날. 민족 최대의 비극이 벌어진다.
압도적인 북한의 군사력 앞에 추풍낙엽처럼 무너지는 국군
해군사령부에도 비상이 걸린다. 인민군 특수부대가 동해에서 차례로 남하하며 후방으로 침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특수 부대의 최종 목적지가 부산으로 확인 되는 순간. 해군참모총장은 진해항에 정박하고 있던 백두산함에게 출동명령을 내린다.

항해 끝에 부산으로 향하는 괴선박을 발견한 백두산함은 괴선박과 여러차례 교신을 시도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고 괴선박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접근하자 괴선박의 총구가 백두산 함을 향해 불을 뿜기 시작한다.
그렇게 대한해협해전의 서막이 오르기 시작한다.
치열한 전투 중 동국의 동료인 성호가 전사하게 되고 동국은 다시 과거의 기억들 때문에 혼란에 빠져 움직일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언제나 현실을 피해왔던 동국은 더 이상은 피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인민군과 마지막 혈전을 치르게 된다.
결국대한해협해전은 백두산함의 승리로 그 막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을 입은 동국은 동료들의 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다. 하지만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닌 자기가 바다에서 진정으로 찾고자 했던 것을 찾은 동국은 미소지으며 세상을 떠난다.

S#1 뉴저지의 거리(밤)

자막: 1949년 12월 미국 뉴저지

크리스마스 캐롤이 도시 곳곳에 울려 퍼지고 세상은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한껏 들떠 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취해 다들 즐거워 보인다.

세계2차 대전의 승리와 차츰 찾아오는 경제적 풍요로움 등 40년대 말, 미국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

전파상 가게 쇼 윈도우 속 TV에서는 세계2차 대전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와 새롭게 나온 신제품들에 대한 화려한 광고로 도배되고 있다. 갑자기 쇼 윈도우의 유리창이 깨지고 상점 주인이 가게 밖으로 내동댕이쳐진다. 문을 열고 가게 밖으로 나오는 강도.

강도는 다쳐서 발을 절면서도 양손에 돈을 챙겨 나온다.

나오면서 옷 안으로 돈을 집어넣으며 도망간다.

사람들이 뿔뿔히 벌어진 거리를 사람들이 밀치며 도망을 가고 있다.

골목사이로 들어온 강도는 안심하며 주위를 둘러본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강도의 몸에 달려들며 육박전을 시작한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두 사람.

데이빗이 강도를 거의 제압하고는 숨을 돌린다.

그때 골목을 경찰관이 밝은 빛으로 비춘다.

눈을 찡그리며 빛 쪽을 쳐다보는 데이빗과 강도.

한명은 후레쉬를 들고 한명은 곤봉을 들고 있는 거구의 경찰 두 명이 데이빗과 강도를 보고 있다.

경찰관1: (부드러운 어조로) hey, stop guys~

자막: 어이 형씨들 그만하지~

손을 들고는 움직이지 않는 데이빗과 강도.

강도 눈치를 보다가 기지를 발휘한다.

강도: (데이빗을 가리키며) it's him! he is burglar

자막: 이 녀석이에요! 강도예요!

데이빗이 당황하며 해명할 틈도 없이 경찰들이 달려들어 곤봉으로 데이빗을 마구 내려친다.

그틈을 타서 도망치는 강도

경찰관1: what a fucking japs!! still jerk!!
자막: 일본 놈들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

경찰관2: fucking guys a bad loser!
자막: 재수 없는 녀석들! 꼴통새끼들!

마구 내려치는 모습이 멀리서 화면에 잡힌다.

S#2경찰서

1. 계단 복도

구두를 신고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가 화면에 잡힌다.
여자는 경찰서 계단을 거쳐서 올라온다.
다급해지는지 조금씩 걸음이 빨라진다.
헤일리가 경찰서 사무실로 올라가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경찰서 사무실 문을 연다.

2.경찰서 사무실안

누군가를 찾는 듯 이리저리 둘러보는 헤일리의 얼굴이 보인다.

경찰관3: (헤일리에게 다가서며)can i help you ma'am?
자막: 무슨 일 이시죠?

헤일리, 경찰관이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다.

헤일리: (명함을 건네며)Hi! My name is haley Jang.
I'm jersey journal journalist

자막: 안녕하세요. 저는 저지 저널의 기자
헤일리 장이라고 합니다.

경찰관3: So what?
자막: 그런데요??

헤일리: (조심스럽게) one Asian do not come here?
자막: 여기 혹시 동양인이 한명 오지 않았습니까?

경찰관3: (헤일리를 위아래로 훑으며) ye, here.. but...
자막: 글썄요,. 있기는 한데...

경찰관3: (유치장쪽을 바라보며)Two...

자막: 둘이라서요..

헤일리와 경찰관, 유치장을 바라본다.

3.경찰서 유치장

유치장 안에는 얼굴이 엉망이 된 데이빗이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해군제복을 입은 동양인 남자 한명도 앉아있다.

제복을 입은 남자, 제복이 이리저리 더러워져있고 남자의 얼굴도 엉망이다.

데이빗과 제복을 입은 남자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

헤일리 유치장에 다간다.

헤일리의 그림자에 데이빗이 고개를 든다.

데이빗:(조금 놀란듯한 표정으로)누나..?!

헤일리, 아무 말 없이 데이빗의 엉망이 된 얼굴이 안타까운 듯 쳐다본다.

4.경찰서 사무실안

유치장에서 나온 데이빗과 헤일리 몸을 돌려서 가려고 한다.

5. 경찰서 유치장안

유치장 안에서 해군제복을 입고 있던 남자 일어나서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철창 앞에 붙어 좌우반동을 주면서 군가를 부르는 자세를 잡는다.

동국, 해군의 '바다로 가자'를 부른다.

동국: 우리들은 이 바다 위에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나니!

바다의 용사들아 돛 달고 나가자 오대양 저 끝까지 나가자!

푸른 바다로 우리의 사명은 여길세! 지키자 이 바다 생명을 다하여!

동국, 유치장이 떠나갈듯 고래고래 군가를 부른다.

경찰서 사람들 동국의 행동에 모두들 어리둥절한 표정이고

데이빗과 헤일리도 가다말고 돌아서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동국은 아주 당당한 표정과 악을 쓰듯 계속 노래를 부른다.

경찰관들 유치장에 다가서서 곤봉으로 유치장 철창을

두드리며 동국에게 소리친다.

하지만 동국 그런 것에 아랑 곳 하지 않고 끝까지 노래를 부른다.

헤일리 그 모습을 유심히 쳐다본다.
웬지 많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그의 모습에 이상하게 매료되는 듯하다.

S#3경찰서 밖(밤)

경찰서를 나오는 데이빗과 헤일리.
거리에는 조금씩 눈이 내리고 있다.
두 사람 말없이 그저 서 있다.
그리고 다시 경찰서 문이 열리며 나오는
해군제복을 입은 동국과 양복을 입은 안상영.
동국, 데이빗과 헤일리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하고는 안상영과 함께 화면 오른쪽으로 사라진다.
데이빗과 헤일리 그 모습을 보다가 왼쪽으로 사라진다.
타이틀이 올라온다.

"701"

S#4 헤일리의 집/ 부엌(아침)

주변 환경이 좋아 보이지 않는 지역의 좋아 보이지 않는
할렘가의 작은 아파트.
집은 좁고 시설이 낡아 보인다.
틀어놓은 라디오에서는 알 수 없는 노래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헤일리, 출근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스타킹을 신고 거울 앞에서 귀고리를 하고 머리를 매만진다.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들어오는 데이빗.
이제 잠에서 깬 듯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을 감고 부엌으로 들어온다.
팬티와 런닝 차림으로 테이블에 앉는다.
테이블 위의 식빵을 꺼내고 있다.
출근 준비를 하는 헤일리를 본 데이빗이 말을 건다.

데이빗: (잠이 깨지 않은 표정으로)벌써 출근하는 거야??
헤일리: (건성으로)어,.. 넌 오늘 언제 출근이야?
데이빗: 나 오늘은 일 없어 (건성으로)..잘 잤다와,

헤일리,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거울에 비쳐 보이는
데이빗을 보며 생각난 듯 묻는다.

헤일리: 야,. 근데 어제 너랑 같이 잡혀있었던 사람 있잖아~
데이빗: (건성으로 대답한다)어
헤일리: (고개 돌려 데이빗을 보며) 그 사람은 뭐 하다가
어제 그렇게 됐데??

데이빗, 테이블에 묻은 자국을 손톱으로 지우려고 한다.

데이빗: (건성으로 대답한다) 내가,. 어떻게 아냐~
헤일리: 노래 하는거 보니까 한국 사람이던데 군인인가?
데이빗: (자기 손톱을 보며 건성으로) 그런가..
헤일리: (궁금한 말투로) 근데 경찰서에는
왜 잡혀 들어 왔을까? 싸웠나?
그 사람도 얼굴이 영망이던데?
데이빗: (귀찮은 표정으로) 영자씨, 영자씨가
알아보세요.~ 명색이 신문사 기자시잖아요~
헤일리: (별 관심 없는 데이빗에 빠진 듯) 아무튼 난 나간다.

헤일리 말을 끝내고는 재빨리 집을 나간다.

데이빗: (건성으로 빵을 물며)어...

S#5 뉴저지의 거리(아침)

세상은 아침의 활기로 가득하고 햇살은 눈부시게 아름답고
모든 거리가 아름다워 보인다.
거리를 걷는 헤일리 미소가 가득한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성큼성큼 걸어간다.

S#6 Jersey journal 신문사 사무실안

6명의 직원들이 작은 사무실에 모여서 자기 업무를 하고 있다.
작은 사무실만큼이나 한적한 분위기다.
업무 분위기도 자유로워 보이고 다들 여유로워 보인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헤일리.

헤일리: (활기차게) Good morning every one!

직원들, 다들 밝게 헤일리를 환영한다.

직원1: Hi! Haley!
직원2: Hi! (시계를 보며 장난치는 말투로)
Now your late haley~!
자막: 지각 아니야 지금??

헤일리: (미안한 표정으로) Sorry~!

직원3: (웃으며) Come on. The editor has not yet arrived.
자막: 빨리 들어와 아직 편집장님 안 오셨어.

헤일리: (편집장실을 보며)Really? What's going on
자막: 정말? 무슨 일이라?

헤일리가 자기자리에 앉으니 마침 편집장이 들어온다.
편집장 표정이 심상치 않다.
여유했던 사무실에 일순 긴장감이 감돈다.

편집장: (화난 목소리로)All~~ set!!!
자막: 모두 집합~!!

S#7 Jersey journal 신문사/ 회의실
편집장을 중심으로 테이블 좌우로 기자들이 앉아있다.
편집장 기자들을 한번 둘러본다.
얼빡한 안경을 끼고 편집장을 보며 미소 짓는 기자,
나이 많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여기자 등
기자들의 면면이 치열, 열정 이런 단어들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사람들이다.
편집장 이런 기자들이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손에 들고 있는 종이들 중 하나를 테이블에 던진다.

편집장: (차분한 어조로)Madam Bennet lost
a cat nap in bed...The cat name is Fifi.
자막: 배넷 여사,. 낮잠을 자고 있던 중 고양이 실종
고양이 이름은 피피.

직원2, 편집장이 자신의 기사를 언급하자 뜨끔 한다.
편집장 손에 들고 있는 종이들 중 다른 하나를 테이블에 던진다.

편집장: Gulseu couple married 40 years party held...
자막: 골스부부의 결혼40주년 파티 개최...

직원1, 편집장이 자신의 기사를 언급하자 뜨끔 한다.

편집장: What do these things, in this neighborhood
accidents there? Missing a cat or a wedding party,
the other articles yet?
자막: 이 동네에서는 도대체 이런 거 말고는 사건 사고도 없나?
언제까지 할머니가 낮잠 자다 고양이 잃어버린 기사나
쓰난 말이야! 좀 재미난 기사 없어? 엉??

직원들, 모두 편집장의 눈을 피한다.
편집장 그런 직원들을 보니 기가 막힌다.

편집장: (화내며) Don't come here before you
got funny one! OK??
자막: 다들 재밌는 걸로 하나씩 물어오기 전에는
들어 오지마! 알았어!

직원들 편집장의 호통에 숨죽이고 서로 눈치를 본다.

편집장: (직원들을 보며) What are you doing now!!
get out! get out of here!!
자막: 아니 다들 안 나가고 뭐해! 안 나가? 안 나가!?

편집장 소리치며 손에 든 종이를 말아 쥐고 회의실을 휘휘 저으며
직원들을 내쫓는다.
직원들 편집장의 호통에 모두들 혼비백산하며 흩어진다.

S#8 뉴저지의 거리(낮)

거리를 걷는 헤일리, 뭔가 기사거리가 없나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한적한 동네에 사건이 일어나기도 힘들어 보인다.
공원에 사람 한명 보이지 않는다.
거리를 걷던 헤일리, 우연히 어제의 경찰서 앞을 지나가게 된다.
경찰서를 보고 멈추는 헤일리.
뭔가가 생각난 듯 경찰서 안으로 들어간다.

S#9 경찰서 사무실

경찰서 사무실의 데이빗 때문에 S#2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경찰관 앞에 서는 헤일리.

경찰관 자리에 앉아서 파일을 읽고 있다가 인기척 때문에 고개를 든다.

앞에 있는 헤일리를 보고 안면이 있다는 반가운 표정이다.

헤일리: Hi! how are you doing?

자막: 안녕하세요

경찰관3: (웃으며) Today's, what's the matter?

자막: 오늘은 무슨일이죠?

헤일리: Do you remember one asian guy
who looks like a navy in yesterday?

자막: 저기 혹시,,어제 유치장 안에 있었던 해군
같은 동양남자 기억하십니까?

경찰관3: (알겠다는 듯) Oh, ye! but why??

자막: 아! 예,,그런데 왜..

헤일리: Can I contact with him?

자막: 그 사람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S#10 경찰서 밖

경찰서 문을 열고 나오는 헤일리.

길을 걸어간다.

NA/경찰관3: I don't know his phone number or
address, we check his identity from
United States Merchant Marine Academy.
So if you ask there you can contact
with that guy.

자막: 그 남자 정확한 연락처는 모르겠고 킹스포인의
해양대학교에서 신원확인이 되었으니 거기서 가서
문의 하시는게 빠를 겁니다.

S#11 버스

버스를 타고 가는 헤일리 창문에 기대서 잠을 잔다.
햇살이 그녀를 비춘다.

S#12 킹스포인트 해양대학교

해양대학교에 도착한 헤일리.

넓은 교정에 멋진 생도들과 학생들의 모습이 보인다.
저마다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이 곳 저곳을 다니며 누군가를 찾는 헤일리의 모습.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중 학교식당에 들어서는 헤일리.

S#13 학교식당

식당에 들어서는 헤일리.

헤일리 옆으로 두명의 학생이 인상을 찌푸리며 나간다.

학생들, 인상을 쓰고 서로 대화하고 있다.

학생1: (인상쓰며)Wow! what's this smell!!

자막: 뭐야 이게 무슨 냄새야!

학생2: yes! something's rotten! where is it from??

자막: 그렇게 마치 뭔가가 썩는 냄새야 어디서 나는 거지?

지나가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헤일리.

식당을 살펴보니 구석에 두 명의 한국인이 보인다.

가져온 도시락을 먹는 김동국과 이성호의 모습.

단출하게 밥에 나물과 많은 김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도시락을 싸왔다.

둘은 말없이 도시락을 펼치고 밥을 먹으려 한다.

한국인들 주위에 있던 학생들은 눈치를 보다가 일어서서 식당 밖으로 나간다.

김동국, 손가락에 밥을 뜨고 그 위에 김치를 올린 채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든다.

헤일리와 눈이 마주치는 동국.

O.L.

S#14 태평양의 바다(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

철쭉 같은 어둠 속에 배 한척이 떠있다.

그리고 배위에 많은 사람들이 인기척을 숨기고 있다.

마치 모두들 약속이나 한 듯 아무 말도 없이 조용한 모습이다.

조용한 그 가운데에 일본군 수병의 복장을 하고 온몸을 떨고 있는 동국.

동국의 온몸이 떨리면서 배 기둥에 그 떨림이 전해져

기동이 조금씩 달달거리는 소리를 낸다.
동국의 옆에 서있는 동국의 형 동환.
동환이 동국의 손을 짹 잡는다.
자신의 손을 잡는 형을 바라보는 동국.
하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는다.
그 순간 어두운 바다 저 멀리서 보일 듯 말 듯
그러나 밝은 빛으로 점 하나가 빛난다.
그리고 조용한 화면의 가운데 무엇인가 검은 물체가 눈앞으로
조금씩 커지더니 어느새 화면 앞을 크게 차지한다.
그 물체가 눈으로 인식할 때쯤 화면이 느려진다.
포탄이다!
천지를 뒤흔드는 쿵! 소리와 함께 화면이 원래상태로 돌아온다.
검은 바다를 대낮같이 밝게 만드는 빛이 세상에 퍼지며
전함에 포탄이 작렬한다.
포탄 한방에 전함 위에 있던 수병들 불에 타고 바다에 떨어지며 아비규환이다.
오른팔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는 동국.
고통에 비명을 지른다.
동환, 동생을 찾기 위해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지옥과 같은 배 위를 돌아다닌다.

동환: 동국아!! 김동국!!

쓰러져 있는 동국을 발견하는 동환.
전함의 함교위에 있던 수병들은 불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불붙은 곳의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한다.
고통스러운 비명소리와 화염이 온통 전함을 감싸고 있다.
동생을 부축하고 불붙은 곳을 빠져 나오는 동환.
마치 지옥과 같은 함교의 모습.
일본제국군의 육일승천기가 불에 타며 휘날리고 있다.
깃발은 깃대가 부러져 함교 위로 떨어진다.
떨어지는 깃대를 보는 동환.
동생을 밀어내고는 그 깃대 밑에 깔린다.
동국 깃대에 깔린 형을 바라본다.
그 충격에 움직이지 못하는 동국

동국: 형..형...

그리고 어디선가 들리는 프로펠러 소리에 함교 위의 수병들
불을 끄다가 모두 하늘을 바라본다.

어느새 전함의 위에 새카맣게 폭격기들이 진을 치고 있다.
그리고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잘 보이지 않는다.
눈으로 인식할 때 쯤 폭탄의 형상이 보인다.
화면이 느려진다.
그리고 화면으로 수천발의 폭탄이 떨어진다.

S#15 병원(낮)

동국순간 식은땀을 흘리며 꿈에서 깨어나 몸을 든다.
몸 이곳저곳과 머리의 절반이 의료용 붕대와 천 조각들로 감싸여 있다.
지나가던 간호사 깨어난 동국을 보고 친절하게 다가간다.

간호사: (반가운 목소리로) 어머! 깨어나셨네요!
정신이 좀 드세요??

조선의 한 병원인 것처럼 보인다.
옆에도 동국과 같은 많은 환자들이 누워있다.
동국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간호사 어리둥절해 하는 동국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는다.

간호사: (미소지으며) 안심하세요.
여기는 부산에 있는 병원이에요.
며칠을 주무셨는지 아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의사선생님 모셔올게요.

심각해 보이는 환자부터 여유로워 보이는 환자까지 다양하지만 간호사도 환자들 모두 웬지 여유롭고 밝아 보이는 분위기이다. 그때 옆에 있는 라디오를 누군가가 높인다. 라디오에서는 일본천황의 육성방송이 흘러나오고 있다. 사람들은 라디오소리에 집중한다.

천황(E): (일어) 이로써,.. 타국의 주권을 배격하고 영토를 침략하는 행위는 본디 짐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미, 영, 중, 소 의 공동선언을 수락합니다. 신민 여러분 일본은,.. 일본은,.. 패배하였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의 모든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통치를 철회할 것입니다.

(자막으로 위의 내용이 한글로 나온다.)

그 말이 끝나자 병원에 있는 사람들 마치 월드컵에서 골을 넣은 듯

환호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다들 손을 들고 만세를 외치고 있다.
병원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대한독립만세!
병실에서부터 전 병원 전 마을에서 대한독립만세가 울려 퍼지고 있다.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동국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운 표정이다.

S#16 동국의 고향/ 부산

부산으로 돌아오는 동국.
거리는 해방의 물결로 넘실거리고 축제분위기이다.
아이들은 태극기를 들고 서로 나 잡아봐라 놀이 중이다.
동국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는다.
오른 팔을 다쳐서 팔을 묶고 있는 동국.

S#17 동국엄마의 국밥가게

부산의 저작거리 한 아주머니가 쾌활하게 국밥장사를 하고 있다.
상인이나 손님이나 모두 흥이 나고 즐거워 보인다.
가게 안에는 작은 꼬마가 식탁 위에서 공책에 낙서를 하고 있다.

단골1: 아유~ 최씨 해방도 됐는데 이거 뭐 공짜 술은 안되나??
동국엄마: 아이고 이 영감탱이가 어디 뺨 맞을 소리를 하고 있노~
 서방은 돈 벌어 온다고 물 건너가서 나자빠져 죽어빠고~~
 큰 아들놈이랑 둘째 아들 놈은 일본 놈들한테 끌려가서
 바다에서 물귀신 되빠고~~
 이제 젓 땀 어린 아 데꼬 사는 과부한테 지금 그런 소리가
 나오나!

단골2: (단골1을 보며) 하여튼 이 영감탱이가 입이 방정이야!
 사과해라 이 사람아! (동국엄마를 보며)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최씨! 오늘 이 집 매상은 내가 다 책임 질테니까
 문 걸어 잠그는게 어떻노?

단골2, 음흉하게 동국엄마를 바라본다.

동국엄마: 이 주둥이는 또 뭐라카노!!

동국엄마, 화내지만 단골들과 동국엄마 모두 웃는다.
동국, 엄마 뒤로 가까이 다가간다.
동국엄마, 인기척에 뒤를 돌아본다.
동국이 웃으며 서있다.

동국엄마 흐느끼면서 기쁜 듯 동국을 품에 안는다.

동국: (웃으며)엄마..잘 지냈어요??

해방의 물결과 함께 희망으로 넘실거리는 거리.
모자의 상봉이 한층 행복해 보인다.

S#18 저작거리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지나가는 동국.

한층 즐거워 보인다.

자전거 뒤에는 국밥을 쟁반에 담아 가고 있다.

배달을 나가는 동국 자전거를 멈춰 세우고 옷가게 앞에 국밥쟁반을 내린다.

가게 앞의 장기를 두는 노인들과 즐겁게 담소를 주고받는 모습의 동국.

표정이 즐거워 보인다.

노인이 주는 돈을 주머니에 넣으며 자전거를 가지고 나오는 동국.

동국: 수고하세요!

인사를 하고 힘차게 자전거에 오르는 동국.

자전거 페달을 밟고 신나게 출발한다.

S#19 동국엄마의 국밥가게

국밥가게에서 국밥그릇을 가지고 자전거에 싣는 동국.

5살배기 동생이 옆에 오자 동생과 장난을 친다.

동생과 복싱을 하며 즐거워한다.

새로운 인생이 행복해 보인다.

미소를 머금은 표정의 동국.

S#20 저작거리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동국.

표정이 밝아 보인다.

아이들이 폭죽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폭죽에 불을 붙이는 아이들

폭죽이 타들어가는 모습이 느린 화면으로 보인다.

즐겁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동국의 모습.

점점 타들어 가는 폭죽.

행복한 표정의 동국.

폭죽이 다 타들어가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터진다.

팡 소리와 함께 놀란 동국이 자전거에서 크게 굴러 떨어진다.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놀란다.

아주머니1: 야!!이놈의 자식들이 진짜!!혼나고 싶나!!

아이들은 아주머니의 반응에 오히려 신나서 도망간다.
사람들은 다시 자기 갈 길을 가고 할 일을 시작한다.
그러나 동국은 그렇지 않다.
동국의 시점, 세상이 느리게 움직인다.
동국의 오른팔에 난 상처가 보인다.
동국은 거친 숨을 내쉰다.
O.L.

S#21 태평양의 바다
불타고 있는 수병들의 모습.
깃대에 깔리는 형의 모습.
O.L.

S#22 저작거리
땅바닥에 엎드린 채 깊은 숨을 몰아쉬는 동국
그때의 공포가 온몸을 감싸는 듯하다.
한참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동국의 모습
F.O.

S#23 동국엄마의 국밥가게
F.I.
자전거를 끌고 들어오는 동국.
다리를 다쳐서 조금씩 썰뚝거린다.
테이블을 뒹다가 들어오는 동국의 모습을 보고는 나가는 동국엄마.

동국엄마: (걱정스러운 말투로)국아~! 와 그라노
 니 어디 다쳤나?
동국: (겸연쩍게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전거 타다가 꼬맹이들 때때 넘어졌어요..
동국엄마: (다행이라는 듯)아이고 참! .조심 좀 하지 그랬노.
 그럼 오늘은 배달 그만하고 주방에 들어가 있어라!
동국: (웃으며)예! 그럼 배달은 엄마가 하세요!!

S#24 국밥가게 주방

동국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온다.
콧노래를 부르며 앞치마를 두르고는 칼을 잡는다.
동국 파를 썰려고 파를 잡고는 파를 썰려고 하는데
칼을 잡고 있는 손이 덜덜 떨리고 있다.
썰어보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리자 포기하고 칼을 내려놓는다.
고개를 숙이고 한숨 쉬는 동국의 얼굴.
F.O.

S#25 동국의 꿈/ 태평양의 바다(밤)

F.I.
아비규환의 전함의 모습 전함을 거니는 동국
걸음을 걷는데 갑자기 점점 시선의 높이가 낮아진다.
그리고 걸으려고 앞으로 나아가려는데 걸어지지도 않는다.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모습을 살펴본다. 다리 아래를 천천히 보는데
정강이 아랫부분이 날아가 피가 철철 나고 있고 너덜너덜해져서
그 밑이 보이지 않는다.

동국: 으아!!!

S#26 동국의 방(밤)

동국: 으아!!!

꿈에서 깨어나는 동국 온몸이 땀에 젖어있다.
다리를 보니 정강이 밑 부분이 장롱 밑으로 들어가 끼여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웃긴 모양새다.
다행이라는 듯 휴 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다.
옆에서 자고 있던 동국동생이 눈을 비비며 일어난다.
동국동생: (졸린 듯) 행님아, 왜 그러는데, 무서운 꿈꿨나?
동국, 동생을 보고는 미소 짓는다.
동국이 말이 없자 다시 눕는 동국동생.
동국, 가만히 앉아있다.

S#27 저작거리(낮)

어제처럼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나서고 있는 동국의 모습 한창 바쁜 모양이다.
국밥을 이집, 저 집 나눠주는 동국의 모습.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며 게시판을 보다가 자전거를 멈추는 동국.
해군모집포스터를 발견하는 동국.
포스터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한다.
그러다 고개를 저으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다.
잠시 뒤 다시 뒤로 돌아오는 동국.
포스터를 떼어간다.

S#28 동국엄마의 국밥가게(밤)

동국과 동국엄마 일이 끝난 가게를 정리하고 있다.
동국 동생은 식탁에 앉아서 다리를 흔들며 공책에 낙서 중이다.
동국, 가게를 정리하며 계속 엄마의 눈치를 살핀다.
뭔가 할 말이 있는 표정.
의자를 정리하던 동국, 엄마를 보다가 입을 연다.

동국: 엄마...나...

동국의 말에 동국을 보는 동국엄마.
동국동생도 동국을 바라본다.

동국: 여기 계속 못 있을 것 같아.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

동국엄마, 다시 고개를 돌리고는 테이블을 닦는다.

동국엄마: (투덜대는 말투)또 가긴 어딜 간다 카노!
 하여튼 하는 짓은 지 아버지를 꼭 닮아가지고
 어쩔 저렇게 걸으려 도는지...니도 그러다 니
 아버지처럼 길바닥에서 객사한다! 이놈아!

동국 엄마의 꾸중을 들으며 미소 짓는다.
동국엄마, 괜한 동국동생에게 화풀이한다.

동국엄마: (공책을 뺏으며)니는 거기 낙서하지 말라고 했나!
 안했나! 니는 또 와이래 말을 안 듣노!!

S#29 해군사령부/ 건물 복도(낮)

초라해 보이는 사령부 건물의 안에 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보기 위해 줄을 맞춰서 앉아있다.

동국이 해군모집포스터를 본다.

자기 앞에 줄을 확인 한 동국은 바지 뒷주머니에 포스터를 구겨 넣는다.

동국, 줄 맨 뒤로 가서 앉는다.

S#30 해군사령부/ 면접실 안

면접관이 세 명이 나란히 앉아있고 면접자 한명이 면접실로 들어온다.

면접관 맞은편의 의자에 앉아있는 면접자

면접관1이 서있고 그의 옆에 시력 측정표가 세워져 있다.

면접관1이 하나씩 지휘봉으로 짚어본다.

2.0의 알파벳“A”를 가리키는 면접관1

면접자는 왼쪽 눈을 주걱으로 가리고 오른쪽 눈을 찡그리면서 보려고 노력한다.

입이 떨어질듯 말듯 대답하지 못한다.

면접자를 한번 보더니 지휘봉을 올려 1.0의 글자 “나”를 가리키는 면접관1

면접자 이번에도 오른쪽 눈을 찡그리고 몸을 앞으로 빼며 보려고 노력하지만

입이 떨어질듯 말듯 대답하지 못한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휘봉을 1.0 에 있는 물고기 그림에 가져가는 면접관1

지휘봉이 머물자 말자 자신 있게 외치는 면접자

면접자: (자신 있게 주저 없이) 생선!!

약간 놀라는 면접관1

2.0의 자동차그림에 지휘봉을 가져간다.

면접자 일체의 주저함도 없이 대답한다.

면접자: 자동차!

놀라는 면접관들

고개를 갸우뚱하며 면접관1이 0.1의 한글“가”에 지휘봉을 가져간다.

면접자 가만히 있다.

이곳저곳 지휘봉을 짚는데 글자는 읽지 못해 가만히 있고

그림에만 크게 대답하는 면접자의 모습.

면접자:나비.....생선, 비행기,
말.....

면접관1,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더니 말한다.

면접관1: (화난 듯 큰 소리로)다음!

면접실로 들어오는 손원일

면접관들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난다.

손원일: (면접관1에게 악수를 건네며 웃는다)잘들 되가는가?

면접관1: 예, 뭐 워낙 다들 나라 안에 배운 사람들이 없어서..

손원일: 하긴,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장교가 될 사람들이네
잘 좀 수고해주게

면접관1: 예, 알고 있습니다.

손원일: (생각난 듯)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면접에 참여해볼까?

면접관들, 황송하고 당황하는 표정들이다.

면접관1: 아니, 제독님께서 그러실 필요까지야

손원일: 어때 무슨 상관인가. 지금 딱히 할 일도 없다네.

면접관1: 예, 뭐 그럼...

면접관1, 밖에 들리라고 소리친다.

면접관: 거기 다음사람 들어 보네!

빠꼼히 열리는 문.

들어오는 사람은 동국이다.

동국 어색한 듯 두리번두리번 거리며 의자 옆에 서있다.

손원일 어색해 하는 동국에게 말한다.

손원일: (미소 지으며) 거기 앉게

동국: (당황해서 의자에 앉으며)아, 예

면접관, 탐탁치 못한 표정으로 동국을 아래위로 살핀다.

면접관1: 지금하고 있는 일이 뭔가?

동국: 지금은,,어머님을 도와 국밥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관들, 역시나 하는 표정이다.

면접관1: 뭐 뱃일을 한적이나 군 경험은 있나?

동국: 예,, 사실 전쟁 때 강제 징집되어 일본군 해군에서

수병생활을 했습니다.

면접관1: (의외라는 듯)오, 고생 했겠구만.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지?

동국: 예,..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1학년마치고
군에 들어갔습니다.

면접관1, 동국을 노려보다가 채점표에 체크하며 혼잣말을 한다.

면접관1: 학력우수..

유심히 동국을 보는 손원일, 동국의 오른팔 반팔 소매 밑으로 큰 상처가 보인다.
상처를 발견하고는 물어보는 동국.

손원일: 그 팔에 상처는 뭐가?

동국: (상처를 감추며)전쟁 중에 다쳤습니다.

손원일: (궁금한 듯) 꽤나 아팠을 것 같은데,..강제 징집에
전쟁 중에 다친 경험도 있고,
사연이 많은 것 같은데, 자네 꿈이 뭐가?

손원일의 질문에 생각을 하는 동국, 잠시 후 입을 연다.

S#31 해군병학교

자막: 1946년 5월 해군병학교(현 해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의 전신 해군병학교 1기의 입교식이 열린다.

천막으로 된 막사와 좁은 연병장 앞의 학교장의 사열대도 단출하기 그지없다.

**사열대에 학교장이 올라가 있고 그 앞으로 100여명의 1기 입교자들이
오와 열을 맞춰 정렬해있다.**

지휘자: 부대~차렷!

지휘자의 구령에 일사분란하게 차렷한다.

훈련소 입소자들의 가운데 동국의 모습이 보인다.

지휘자: 인속 상관께 대하여 받들어~충!

입소자들: 충성!

S#32 뒷산(아침)

산악 구보를 하는 생도들의 모습.
다들 체력이 부족한지 힘들어 하는 모습이다.
다른 생도들을 앞서나가는 동국 뛰어난 모습이다.
그 때 뒤에서 동국을 쫓아오는 성호의 모습.
서로를 의식하며 한 발짝 씩 상대방보다 앞서려는 두 사람

S#33 식당(낮)

식당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허름한 천막 안에 많은
생도들이 자리 잡고 앉아 있다.
동국과 성호가 나란히 앉아 있다.
개인 국그릇 겸 밥그릇이 하나 있고 테이블 가운데 큰 대야에
나물이랑 김치가 들어있는 형태로 여섯 명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한다.
배가 고플지 모든 생도들 허겁지겁 식사를 한다.
숟가락으로 밥그릇을 떠보는 성호.
밥인지 미음인지 모를 덜건 국이 떠진다.
다시 내려놓는 성호.
옆의 동국을 보니 정신없이 식사를 한다.
그 모습을 본 성호, 경쟁심이 생기는지 죽어라고 달려들며 먹는다.

S#34 막사 안(밤)

잠을 청하는 생도들이 모기가 많은지 다들 손으로 자신의 몸을 때린다.
모기와 이 때문에 잠을 청하지 못한다.
동국과 성호도 몸을 때려가며 잠을 자지 못한다.

S#35 강의실 안(낮)

강의실 안을 뻘뻘하게 생도들이 채우고 있다.
책상도 없이 바닥에 수십 명이 빈틈없이 앉아서 강의를 듣는다.
모두들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듣고 있다.
조금씩 칠판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 교수.
조금씩 쓰던 글이 어느새 칠판을 가득 매웠다.
다 쓰고 만족스러워 표정으로 뒤로 돌아서는 교수.
가운데 한명의 생도를 제외한 수십 명이 모두 같은 자세로
고개를 숙인 채 잠들어 있다.
가운데 고개 들고 있던 생도도 몇 초 후 옆으로 쓰러진다.

S#36 바다 위 선박(저녁)

몹시 흔들리는 선박위에 수십 명의 생도들의 가운데 앉아있다.

한 생도 조금씩 표정이 일그러지며 고통스러워한다.

갑자기 배 옆으로 튀어나가는 생도.

배 밖으로 토하기 시작한다.

생도1: 우웁!! 옥!!

그 소리를 듣는 생도들, 소리자체도 괴롭다. 너도나도 배 밖의 바다로 토하기 시작한다. 동국과 성호는 눈을 감고 참는 듯 보인다.

잠시 후 배 밖에 토하고 있는 성호와 성호의 등을 두들겨 주는 동국

성호 정말 보는 사람이 매스꺼울 정도로 토한다.

성호의 등을 두들겨 주던 동국. 성호를 보고 있자니

헛구역질이 조금씩 올라온다.

결국 동국도 바다에 토한다.

이제 성호는 다 끝났는지 동국의 등을 두드리려준다.

동국의 등을 조금 두드리던 성호 동국을 보다가 다시 자기가 토한다.

해가 저무는 바닷가.

S#37 동국엄마의 국밥가게

언제나처럼 소란스러운 저작거리.

동국의 어머니 오늘도 언제나와 같이 활기차게 국밥장사를 하고 있다.

손님들에게 국밥을 내어 주는 동국의 어머니 손님들과 담소를 주고받는다.

단골1: 어이 최씨! 오늘은 국밥 좀 많이 팔리는가?

동국엄마: (답답하다는 듯 그래도 웃으며) 아휴 뭐 언제나 똑같죠 뭐..

단골2: 그래도 우리가 매일 와서 팔아주잖아 안 그래?

동국엄마: 네! 박영감님이랑 김사장님 덕분에 입에 풀칠합니다.

손님1, 웃으면서 소주한잔을 걸친다.

그리고는 고개를 드는데 무엇인가를 발견한 듯 놀란다.

손님1: 아니 저거 최 씨네 둘째 아들 아니야??

동국엄마 그 말에 놀라며 뒤를 돌아본다.

해군 정복을 입은 동국이 엄마를 보고 웃으며 서 있다.

S#38 해군사령부

계양대 높이 펄럭이는 태극기와 그 옆으로 펄럭이는 해군기가 보인다.
의자에서 일어서며 프레임 인 하는 손원일의 모습 손원일이
화면에 들어오면서 군악대의 연주가 시작된다.
3000명의 전 해군장병들이 사열해 있는 모습이다.
이제 꽤나 규모가 있고 그럴싸한 형태가 갖추어 진 모습이다.
연주가 끝나고 제대의 앞에 서있는 지휘자가 구령을 넣는다.

지휘자: 참모총장님께 대하여 받들어~충!

해군장병(E): 충성!

손원일 거수경례를 받고는 내린다.

훈시를 하는 손원일

손원일: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해군으로서 그 위대한 첫 걸음을....

김동국, 이성호, 최영남 등 미래 701의 주역들의 얼굴이 하나 씩 보인다.
그 외에 인수단 장교들의 늙름한 모습들도 보인다.

S#39 해군사령부/ 참모총장실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 손원일.
똑똑 노크 소리가 들린다.

손원일: (책상 위에 눈길을 둔 채)들어오세요.

방 안으로 들어오는 동국. 손원일 앞에 서서 경례를 한다.

동국: 충성!

손원일: (동국을 보며 미소 지으며)음 그래,..대위진급 축하하네.

동국: 감사합니다. 제독님 덕분입니다.

손원일, 일어서서 찻잔을 꺼내오더니 찻잔에 찻잎을 넣는다.

손원일: (찻잎을 넣으며)내가 왜 자네를 내 부관으로
 대려 왔는지는 알고 있나?

동국에게 질문을 한 후 찻잔에 물을 따른다.

동국: (머뭇거리다가)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손원일: (찻잔을 저으며)자네, 면접 때 했던 말 기억하나?
동국: (생각하다가)예,.. 옛!
손원일: (찻잔을 입에 가져대며)그 말 지키는지 내가
옆에서 볼 걸세.
동국: (손원일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예! 알겠습니다.

손원일, 동국의 반응이 재밌는지 웃는다. 동국도 손원일을 따라 어색하게
입 꼬리를 올린다. 재밌는지 어색한지 모를 방의 분위기.

S#40 해군기지

손원일제독이 배들이 정박된 부둣가를 거닐고 있다. 옆에는 동국과 함께이다.
기지의 많은 배들은 다들 노후화되고 일반 어선과 같은 상용선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인다.
진짜 군함다운 군함은 보이지 않는다.
정박하고 있는 배들을 보던 중 손원일 제독 옆에 있는 동국에게 질문을 한다.

손원일: 이보게 귀관은 지금 우리 해군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나?
동국: (우물쭈물하며) 이제 시작인 단계라서 ..
뭐 앞으로 노력하면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원일: (미소 지으며) 괜찮네,.. 솔직히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보게
동국: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진짜 해군이라고 말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기본적인 장비라든지 시설이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복장조차도 아직 예산이 나오지 않아 일본군 것을
그대로 착용하고 있습니다.
손원일: 그래,..나라에 군인들이 입을 옷 살 돈조차 없다니..참.
동국: 그리고... 제대로 된 전투함 한 척 없습니다.
미군이 인도해준 소형 보병 상륙용 함정,
일본군이 남기고 간 소해정, 민간에서 가져온 화물선을
경비정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들도 대부분이 장비가
노후해 운용이 가능한 배가 전체의 절반이 안됩니다.
손원일: (탄식하며)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입을 옷도 탈 배도 없다,..
해군은 해군인데 제대로 된 군함조차 없는 해군이라...

손원일, 씩씩한 듯 바다를 보고 있다.
같이 바다를 바라보는 동국.
동국과 손원일 말없이 바다를 본다.
문득, 동국은 고개를 내리고 바닥을 본다.
바닥에 개미들이 열심히 먹이를 몰아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집으로 가고 있다.
그 모습을 보던 동국이 뭔가가 떠올랐는지 고개를 든다.

동국: (조심스럽게)제독님..

동국의 목소리에 동국을 바라보는 손원일.

동국: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동국의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한 표정의 손원일.

S#41 해군사령부/ 창구

창구에 많은 해군장병들이 월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순서대로 월급을 봉투에 넣어서 지급받고 있다. 다들 즐거운 표정이다.

NA/손원일: 해군장병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해군참모총장으로서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언제나 도움을 받아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힘이 아직 미약하여 우리해군은
아직 제대로 된 전투함이 한척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군함 없는 해군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월급을 지급받는 즐거운 표정의 동국.
월급봉투에서 돈을 조금 빼내는 동국.
돈을 받고 나오는 장병들 모두 월급봉투를 열어서 돈을 조금 빼낸다.

NA/손원일: 하지만 저는 별명보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에 더 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S#42 길거리

고철을 가득 실은 손수레를 수병 두 명이 움직이고 있다.
한명은 손수레를 끌고 있고 한명은 수레를 밀며 길을 다닌다.
수레를 미는 수병이 가는 길에 고철이 보이자 쥘쥘하게 수레에 담는다.

NA/손원일: 맞는 말입니다. 아직 우리는 함포가 탑재된 군함이 없어
 바다에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고작 그 정도입니다.

S#43 고물상

수병들 고물상 주인으로부터 고철을 팔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NA/손원일: 하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힘없는 나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 없는 것의 아픔을 느껴봤습니다.

S#44 어느 넓은 집의 마당

아낙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삼삼오오 앉아 빨래를 한다.

NA/손원일: 내 아내를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나라의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는 아픔을 겪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빼앗겨야 했습니다.

S#45 길가의 옷 수선 가게

고친 옷을 손님에게 주고는 돈을 받는 아낙

아낙: (웃으며) 감사합니다.

NA/손원일: 그렇게 힘이 없어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야 했습니다.

S#46 해군사령부/ 사무실

모금함이라고 붙은 나무상자에 사람들이 돈을 넣고 있다.
고철을 팔아서 돈을 받았던 수병들이 모금함에 돈을 넣는다.
옷을 고친 아낙이 와서 돈을 넣는다.
많은 해군장병들이 순서대로 돈을 넣는다.
동국, 미소 지으며 돈을 넣는다.

NA/손원일: 더 이상은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소중한 무엇 인가를, 소중한 누군가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아들딸들은 보다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보다 자유로운 세상에서 나라가 힘이 없어 눈물 흘리지 않고
행복하게 자신들의 인생을 영유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어떤 일도 해낼 것입니다.

S#47 이승만 대통령의 관저

이승만 대통령 소파에 앉아 서류 파일을 넘기며 꼼꼼히 서류를 보고 있다.
손원일 이승만의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옆에는 이승만의 비서가 서있다.

이승만: (손원일을 보며) 해군 장병들 월급을 10%씩 모으고
장교랑 하사관들 부인은 길쌈을 하고 고철을 주워 다가...
대단하구만.. 그래,.. 그래서 이게 모두 얼마야?
손원일: 예,.. 모두 만 오천달러입니다.
이승만: (놀라며)뭐?? 만 오천 달러???
손원일: 예..그렇습니다.

이승만, 소파 뒤로 기대며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다.

이승만: 만오천달러....

이승만의 반응에 손원일 긴장한다.

이승만: 에드워드 손.. 정말 고생했겠구만..
손원일: 아닙니다,.. 저 보다도 저희 해군장병들이 고생한 겁니다.
이승만: 그래 이 돈으로 전투함을 마련하고 싶다는 거군,
군함은 알아봤는가?
손원일: 아직 거기까진..
이승만: 음 그럼 내가 직접 적합한 배로 알아봐주지!
손원일: (표정이 밝아지며) 예,..?! 감사합니다!

이승만 옆에 서 있는 비서에게 지시한다.

이승만: 이봐 고문관으로 와 있는 로빈슨 대위 좀 불러와봐
(손원일을 보며) 대단해,.. 에드워드 손~

손원일, 밝은 표정이다.

S#48 술집(밤)

동국과 성호와 그 외 해군병학교 1기동기들 4명이 술집에 둘러앉아있다.
조출한 술자리지만 즐거운 분위기들이다.

동기1: 자자 다들 주목!
동기들: 주목!
동기1: 그럼 해군병학교 최고의 꼴통
 이현수가 건배제의 하겠습니까!

동기1의 말에 다들 웃는다.

동기1: 제가 위하여를 선창하면 다 같이 위하여를
 복창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동기들: 예!
동기1: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해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동기들: 위하여!

모두들 잔을 들고 건배한다

동국과 성호도 웃으며 즐거워 보인다.

한잔 두잔 다들 조금씩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취하는 분위기다.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다들 신나게 노래를 부른다.

동기들: 우리들은 이 바다 위에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나니!
 바다의 용사들아 돛 달고 나가자 오대양 저 끝까지 나가자!
 푸른 바다로 우리의 사명은 여길세!
 지키자 이 바다 생명을 다하여!

무르려 익어가는 술자리.

성호 취기가 올랐는지 동국에게 눈을 감고 슬며시 기댄다.

동국 친구들과 이야기 하다 자신에게 기대는

성호를 슬쩍 피하자 성호 비웃으며 잠에서 깬다.

잠에서 깬 성호 옆에 있는 동국을 발견하고는 술주정을 한다.

성호: 어이! 귀관은 왜 해군에 들어와서 이 고생을 하나??

동국도 술이 취해서 성호의 장난을 기분 좋게 받아준다.

동국: (웃으며) 예! 대위 김동국.
저는 중요한 뭔가를 찾으러왔습니다~!
성호: (혀가 꼬인 말투) 뭐? 뭔가를 찾으러 와?
그게 뭐가? 자네 뭘 분실했나?
동국: 예! 저는 바다에 중요한 것을 빠트려 버렸습니다.
성호: (혀가 꼬인 말투) 어이고 안되지. 안되지!!
잃어버리면.. 꼭 찾길 바라네!!

성호, 동국을 보고는 다시 진지하게 물어본다.

성호: 그럼 자네 나는 왜 들어왔는지 아나??
동국: (웃으며 조금은 궁금한 표정) 글썄요... 왜 들어오셨습니까??

성호, 갑자기 진지한척 다른 동기들 눈치를 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동국에게 말한다.

성호: 나는 왜 들어왔냐면...

동국, 성호의 갑작스런 모습에 진지하게 듣는다.

성호: 내 목적은 세계정복이다...!!

어이없게 뜬금없는 말을 마치고는 곧장 테이블 위에 쓰러지는 성호.
잠시 후 쓰러진 성호의 얼굴 밑으로 토사물이 흘러 테이블을 적신다.
동국 그 모습을 한심하게 쳐다본다.

S#49 이승만 대통령 관저 앞
관저 앞을 나오는 손원일의 모습 정오의 햇살이 그의 모자챙에
반사되어 반짝거린다.
조금씩 단풍이 물들어가고 천천히 가을이 찾아오는 것 같다.

NA/이승만: 내가 알아보니 미국의 킹스포인트에 있는
해양대학교에서 실습선인 화이트헤드 소위라는
선박을 팔 계획인가 보더라구.
지금은 실습선인데 원래 미국 해군에서 쓰던

전투함이 라더군. 실습선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됐다나봐.
에드워드 손이 한번 가서 잘 알아봐

<커트 인> 이승만 대통령의 관저 안
이승만대통령과 손원일이 소파에 앉아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두툼해 보이는
봉투를 테이블에 올리고 손원일에게 건넨다.

이승만: (테이블 위로 봉투를 밀며)그리고 이건..

<현실> 이승만 대통령 관저 앞
한 걸음씩 관저 앞으로 걸어 나오는 손원일.
한 걸음 한걸음 천천히 걸어 나온다.

NA/이승만: 군인들이 배가 없어 배를 사려고 돈을 모았다는데
그 말을 듣고 나라에서 가만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국고4만5000달러이네,. 배를 사는데 이걸 보태서 쓰게나...

대통령이 준 봉투를 안주머니에서 꺼내는 손원일 주위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핀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봉투를 확인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그래도 입은 웃는다.
감격스럽고 너무 기뻐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눈물을 닦으며 웃는 손원일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손원일의
뒷모습이 멀리서 잡힌다.

S#50 해군기지

기지 안에서 지프한대가 달리고 있다.
선글라스를 낀 장교가 품을 잡고는 지프의 앞좌석에 운전병과 함께 타고 있다.
그리고는 부둣가의 소형 경비정 앞에 차가 멈춘다.
소형 경비정의 이곳저곳을 체크하고 있는 이성호.
수병들에게 지시를 하며 선박의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기관에 문제가 생겼는지 기관실을 열어 살피는 이성호와
그 주위에 수병들이 모여 있다.
성호, 기관실 문을 닫으며 문제가 뭔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젓는다.

성호: 하여튼 제대로 말을 듣는 게 하나도 없구나! 정말!

수병들이 성호의 불평 섞인 말에 웃는다.
그때 선글라스를 낀 장교가 성호의 앞에 멈춰 선다.

선글라스장교: 자네가 이성호인가?

선글라스 낀 장교를 발견한 성호, 상급자인 것을 알고는 경례한다.

성호: 충성! 예, 제가 대위 이성호입니다만

선글라스장교: (성호를 아래위로 보더니) 따라오게

무슨 일인지 의문이 드는 성호.
그 장교를 따라 지프에 올라탄다.

선글라스장교: (운전병에게)출발해

장교의 명령에 출발하는 지프.
화면에서 사라진다.

S#51 해군사령부 앞

해군사령부 건물 앞에 도착한 지프

지프에서 내리는 성호와 선글라스장교 해군사령부

건물을 이리저리 둘러보는 성호

지프에서 내린 선글라스장교 지프에 달린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한다.

말끔한 자신의 모습에 만족을 하고 웃는 선글라스장교

선글라스장교: (성호를 보며) 따라오게

성호: 아, 예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성호와 선글라스장교

S#52 해군사령부/ 참모총장실

똑똑

노크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성호와 선글라스장교 들어온다.

선글라스장교: 충성! 데려왔습니다.

선글라스장교 말을 끝낸 후 혼자 나간다.

나가는 장교를 바라보는 성호. 장교가 나간 후 어색하게 서있다.
방에는 손원일과 14명의 장교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다.
최영남, 장교1,2,3,4 그리고 동국을 포함하여 14명의 장교들이 모여 있다.
다들 차 한 잔씩을 자기 자리 앞에 놔두고 있다.

손원일: (성호를 보고 웃으며)자네가 이성호인가?
이야기 많이 들었네

성호, 동국을 쳐다본다. 동국 아무 표정 없이 성호를 보고 있다.

성호: (손원일을 보며)예.
손원일: (진지하게)음... 아주 꿈이 원대한 친구라더군

성호가 동국을 보자 동국이 워크를 날린다.
동국의 모습에 열 받지만 뭐라고 하지 못하는 성호

성호: (손원일을 보며)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손원일: (테이블의 의자를 가리키며)아무튼 여기로 앉게
성호: 예

성호, 테이블 끝의 자리로 와서 앉는다.
손원일,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입을 연다.

손원일: 그럼 다들 왔으니 이야기를 시작하지..

손원일이 입을 열자 나머지 장교들 주목한다.

손원일: 얼마 전에 우리 군에서 모금운동을 벌였던 일을
기억들 하겠지. 우리 손으로 우리 전함을 구입하고자
했던 운동이었는데 다행히 대통령각하께서
승낙해주셨네 그리고 우리가 구입할 전투함까지 알아봐 주셨네..

손원일의 말에 다들 얼굴이 환해진다.

손원일: 내가 먼저 가서 일단 구입을 할 건지 말건지를 결정을 할 건데
말이야 구입하기로 결정이 되면 그 배를 우리나라로 인수해 올
인수단이 필요해..

손원일, 장교들의 얼굴을 한명씩 보며

손원일: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새로운 전투함의
인수단이 되어주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장교들, 아직까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들이다.

손원일: 내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귀관들이 미국에 가서
배를 이끌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되는 일이야.
간단한 일이니까 부담가지지 않아도 되네.

장교들 이제야 좀 알겠다는 표정이다.

손원일: 그래, 간단하게 배만 우리나라까지 안전하게 운항해서
오면 되는 일이야 자신 있지?

(성호를 보며) 어이 이성호 자네, 자신 있지?

이성호: (당황하며)예!

손원일: (웃으며) 그래 내가 먼저 미국에 가서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귀관들도 차차 떠날 준비를 하고 있게나.

S#53 동국의 방(낮)

동국 방에서 이리 저리 짐을 쏘다.

짐을 싸는 동국을 옆에서 동국동생이 딱지를 접으며 지켜보고 있다.

웃가지랑 어머니와 동생 사진을 챙긴다.

동국을 지켜보던 동국동생, 동국에게 말을 건다.

동국동생: 행님아. 어디가나??

동국, 자신을 부르는 동생을 웃으며 바라본다.

동국: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응, 형이 좀 멀~~리 가게 됐어.

동국동생: 행님아, 그럼 언제 오는데?

동국: 글썄, 언제 올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동국동생: 이번에도 갔다가 오는 거제??

동국, 동생의 말에 미안한 듯 대답하지 못한다.

동국: 당연하지~! 행님이 언제 안 온다드나??
 그러니까 행님 올 때까지 우리 동철이가
 엄마 말 잘 듣고 엄마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라 알겠지?

동국동생, 동국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딱지 접기에 집중하며 대답한다.

동국동생: (딱지를 보며)알겠다...

동국, 동생의 모습에 미안하다.

S#54 동국의 집/ 마당

방 밖으로 나오는 동국.

동국엄마가 마당에서 야채를 다듬고 있는

방에서 나온 동국, 엄마 옆에 가서 앉는다.

동국 혼자 야채를 다듬고 있는 엄마의 뒷모습을 본다.

초라한 뒷모습이 안쓰러워 보인다.

동국, 엄마의 어깨를 주무른다.

동국: (웃으며)엄마~!

동국엄마, 부끄러운 듯 동국의 손을 피하려하지만

동국 힘을 주어 엄마가 못 피하게 한다.

동국엄마: 야가 또 와이라노!!

동국엄마, 싫지만은 않은 표정이다.

동국: 엄마,. 나 이번에 멀리~떠난다.

동국엄마, 웃다가 놀라서 동국을 쳐다본다.

동국엄마: 이놈아가 어디를 또??!!

동국: 미국....

동국엄마: 미국?? 언제 오는데?? 위험한 일은 아니가??

동국: 아마 두세달 쯤?? 위험한 일은 아냐.

동국엄마,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한숨을 내쉰다.

동국엄마: 나쁜 새끼,, 그래 잘가라 이놈아. 못된 놈. 얼어 죽을 놈.

동국엄마, 다시 야채를 다듬는다.

동국, 동국엄마의 모습을 본다.

동국: 미안,, 엄마,,

엄마를 보다가 단풍이 든 나무를 바라보는 동국.

여기에도 가을이 찾아왔다.

S#55 국밥가게 앞

동국의 엄마 분주하게 장사를 하고 있다.

짐꾸러미를 매고 정복을 입고 있는 동국이 가게 앞에 멈춘다.

동국엄마 일하다가 동국을 발견한다.

동국에게 다가오는 엄마

동국엄마: 지금 가는 거가??

동국,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동국엄마, 앞치마에 손을 닦고는 주머니를 뒤진다.

몇 푼 안되는 구겨진 돈을 동국의 손에 쥐어주는 동국엄마.

동국엄마: 자, 먼 길이라매. 이거 가는데 노잣돈에 보태써라,,

동국, 말없이 그 돈을 바라본다.

돈을 보다가 주머니에 돈을 넣는 동국.

동국: (웃으며)고마워 엄마,,

동국 돌아서서 길을 걸어간다.

엄마는 동국이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다.

동국, 많은 생각이 드는 표정이다.

S#56 해군사령부 앞

사령부 앞에 15명의 장교들이 각자 짐을 가지고 모여 있다.

사령부건물 안에서 S#50에 등장했던 선글라스장교가 나온다.

앞에 서있는 장교무리를 발견하고는 다가온다.

선글라스장교: 다들 모여 계셨군요.
이쪽으로 따라 오시죠

선글라스장교의 말에 다들 따라간다.
이성호는 혼자 궁시렁 거린다.

이성호: 저 새끼는 누군데 맨날 오라가라야

이성호 혼잣말을 하며 따라간다.

S#57 김포 비행장

험한 비행장에 작은 여객기 한 대가 있다.
비행장 옆에 15명의 해군장교들이 정복을 입고 서있다.
표정들이 어색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동국: 뭐야,. 배로 가는 게 아니었어??

성호: 비행기는 처음 타보는데.

최영남: (동국을 보며)야,. 비행기가
배보다 멀미가 심하냐??

동국: 글썄, 저도 안타봤습니다만...아무래도

최영남: 그렇지? 배보다 심할 것 같이 생겼지??

동국: 예...

장교들, 이제 뭘 어쩌나 하는 눈빛으로 선글라스장교를 바라본다.
손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피던 선글라스장교, 가만히 서서
자신을 보는 인수단 장교들을 발견하고는 말한다.

선글라스장교: (비행기를 가리키며) 뭣들 하십니까?
올라타십시오

그 말에 비행기에 어색하게 오르는 인수단 장교들.

S#58 노스웨스트 항공기 안

비행기 안의 장교들 어색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있다.
좌석이 불편한 듯 이리저리 엉덩이와 허리를 움직인다.
비행기 안에는 그들 이외에 여러 명의 외국인들이 앉아있다.
장교들 중 유일하게 이성호만 외국인과 같이 자리에 앉게 된다.
자리에 앉으려다 외국인인 것에 짐짓 놀라는 성호.

외국인은 성호를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짓는다.
성호 눈을 회피하며 자리에 앉는다.
하이! 헬로우 하며 성호와 계속 눈을 마주치려는 외국인.
성호는 못 본척하며 팬스레 짐을 만지고 의자를 만지며
계속 눈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S#59 항공기 밖
조금씩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S#60 항공기안
해군장교들 긴장한 듯 침을 삼키고 팔 받침대를 잡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간다.
동공이 커지고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S#61 항공기 밖
바퀴에 속력이 붙기 시작하고 비행기가 뜨기 시작한다.

S#62 항공기안
해군장교들 매우 긴장하며 모두들 오!!!하는 감탄사를 길게 내뿜는다.
다른 승객들 그들의 모습을 어리둥절하게 바라본다.

S#63항공기 밖
하늘을 날아오르는 항공기.
장교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진다.

해군장교들(E): 으아~!!!

S#64 동국의 꿈/ 태평양의 바다(밤)
일본군 전함에 타고 있는 동국의 모습이 보인다.
전투의 포화 속에 숨어있는 동국의 모습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포탄과 전함의 폭발소리에 움찔거리며 놀란다.
살며시 눈을 뜨고 고개를 드는 동국 눈 앞에
불타는 동환이 고통스럽게 동국을 쳐다본다.

동환:(잡으라는 듯 손을 내밀며) 동국아...

S#65 항공기안
놀라며 꿈에서 깨어나는 동국.

얼굴이 땀범벅이다. 주위를 둘러보는 동국
다른 동료들 모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
안심하고 등받이에 털썩 기대는 동국
문득 창밖을 보다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눈부신 뉴욕의 모습에 놀란다.

S#66 뉴욕공항(밤)

쭈뼛쭈뼛하는 발걸음들, 발걸음만 보아도 어딘가 모르게 영성하고
어리바리하다.
15명의 대한민국해군장교들의 공항 한가운데에 올망졸망 모여 있다.
넓디넓은 뉴욕공항에서 너무나도 외로워 보인다.
멋진 제복을 입은 여객기 파일럿들과 스튜어디스들이 그들의 옆을 지나간다.
몸매와 얼굴모두 빼어난 미남미녀들이다.
그들은 뭔가 가소롭다는 듯이 해군장교들을 쳐다보고 비웃으며
지나가고 동국과 그 외 해군장교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같은 제복을 입었지만 그들에 비해 후줄근해 보이는 서로의 모습에
웬지 모를 부끄러운 기분을 느낀다.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들이 넘쳐나고 너무 많은 사람들과
밝은 빛 속에서 연신 주위를 살피며 혼란스러워 하는 장교들

안상영(E): 한국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갑자기 들리는 한국말에 반색을 하며 돌아보는 장교들
미국인처럼 양복을 차려입은 안상영이 웃으며 서있다.
장교단사이로 최영남이 앞으로 비집고 나온다.

안상영: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통역과 기타 편의를 제공하게
될 안상영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미스터 안이라고 부르세요.

손을 내미는 안상영과 손을 잡는 최영남.
최영남과 안상영 악수를 한다.

최영남: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인수단 대표 최영남 중령이요.
안상영: 예, 손원일 제독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최영남: 저야 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상영: 예 그럼 일단 먼저 숙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영이 앞장서고 나머지 장교들 뒤를 따른다.

S#67 택시 안(밤)

택시 안에 최영남, 이성호, 김동국, 안상영이 타고 있다.

택시가 지나가는 길을 따라 뉴욕거리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진다.

장교들 그 모습에 감탄을 하면서 쳐다본다.

이성호 옆에 있는 최영남을 보며 말한다.

이성호: (귓속말로) 우리나라의 전구란 전구는 다 모아도
이 한쪽 거리에 있는 것 보다 적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최영남: (못마땅한 듯) 뭐 미국도 매일 이렇겠나. 무슨 축제 같은 거겠지

안상영: 하하 여기 아메리카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특히 이곳 뉴욕은 더 하죠 그래서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들 부르죠.

안상영의 말에 장교들 놀라면서 다시 바깥풍경을 바라본다.

휘황찬란한 뉴욕의 모습

S#68허름한 호텔방안

호텔 안으로 들어서는 장교들 비좁은 방에 15명이 한번에 들어온다.

안상영: 이곳에 여러분이 오늘 묵으실 방입니다.
화장실은 저쪽에 있고 나가실 때는
꼭 키를 들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필요 하신 게
있으면 인터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늘 주무신 다음에 내일 아침 뉴저지의
호보켄으로 이동하셔서 선박
인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안상영, 양복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낸다.

안상영: 그리고 이걸 제독님께서 인수단원들에게
전해주라고 하신 편지입니다.

최영남에게 편지를 건네는 안상영

안상영, 인수단을 한번 둘러본 후

안상영: 뭐 다른 질문있습니까?

인수단원, 안상영만 멀뚱히 바라본 채 조용하다.

안상영: 그럼 오느라 수고들 하셨을 텐데 꼭 쉬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다들 그럼(느끼하게) 굿 나잇~!

말을 마치고 인사를 한 후 안상영은 방 밖으로 나간다.

S#69 불이 꺼진 호텔방안(밤)

15명이 좁은 호텔방에 이리저리 부대끼어 잠을 청하고 있다.

두 개의 침대에 몇 명이 자고 나머지는 땅바닥에 웅기종기
모여서 잠을 자고 있다.

방 이곳저곳에 걸린 제복은 멋지게 다림질되어 각이 잡힌 채 벽에 걸려있다.
초라하게 잠을 청하는 장교들과 깨끗한 제복이 대조를 이루며
그들의 자부심을 드러나게 한다.

NA/손원일: 친애하는 인수단 장교 여러분.
 고향을 떠나 조국을 위해 먼 길을 찾아온
 여러분에게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S#70 해양대학교의 사무실(낮)

사무실 안에 몇 명의 직원이 앉아있고 손원일 인사를 하며 사무실로 들어간다.
사무실에서 직원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손원일의 모습.
직원은 물어보는 손원일에게 대답을 하고 있다.

NA/손원일: 여러분보다 한발 먼저 이곳 미국에 온 본인은
 우리해군의 최신형 전투함을
 미리보기위해 이곳저곳을 찾아보았습니다.

S#71 택시 안

택시 안의 손원일이 지도를 보며 지도에 이것저것을 표시한다.

NA/손원일: 원래 킹스포인트의 해양대학교에 소속되어있었던
 화이트헤드 소위 호는 이미 오래전에 뉴저지의
 호보켄 부둣가로 보내졌습니다.

S#62 호보켄 부둣가

많은 배들이 수리를 기다리며 부둣가에 정박하고 있다.

부뚝가를 걸어가는 손원일.
부뚝가를 들어가다 만난 한 남자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본다.
남자 손으로 방향을 가리킨다.
손원일 인사를 하고 다시 걸어간다.
걸어가던 손원일 멈춰 선다.
배를 발견 했는지 고개를 들고 바라보는 손원일.

NA/손원일: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전투함이 될 선박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한 선박을 보고 있자니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출발이 이렇게나 미약하구나.
우리나라가 아직 이런 나라구나.
하는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인수단 여러분을 믿습니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우리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열정을 믿습니니다.
미국에서의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추신, (뜸 들이는 말투)그,..이제 와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그.. 오기 전에 했던 쉬운 일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취소하겠습니다. 인수단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1949년10월1일 손원일 대도

S#73 호텔방 안

단잠에 빠진 해군장교들의 모습이 보인다.

F.O.

S#74 호보켄 부뚝가

F.I.

부뚝가에 서있는 인수단 장교들과 안상영의 모습
안상영을 제외한 나머지 장교들 허탈한 표정을 하고는 앞을 보고있다.

성호: 와,.. 이배가 바로 그...우리의...

최영남: 옆의 안상영을 보며 묻는다. 이 배가 맞습니까?

안상영: (배를 보며)예 화이트헤드소위 호 이 배. 맞습니니다.

장교들 말이 없다.

배의 모습이 보인다.

이리저리 녹이 쏴고 찌그러져있다.
함포가 있던 곳은 함포가 사라진 채 텅 비어있다.
마스트에 등지를 튼 바다 새는 불청객들이 못 마땅한지
계속 깹깹거린다.
장교들 말없이 서있다.

동국: (어색하게 웃으며) 뭐 조금만 손보면 되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최영남: 그래 뭐,, 이정도면 금방 고칠 수 있겠네,,

화이트헤드 소위 호 위로 올라간 장교들과 안상영.

장교1: 뭐야 이거 전투함인데 함포도 없잖아.
안상영: 전투함을 실습선으로 개조 했던 거라 함포는
빼냈습니다. 다시 장착해야 합니다.
별써 전투함으로는 퇴역한지 10년도 넘었어요.

S#76화이트헤드의 기관실 안
기관실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먼지가 가득하고 녹이 쏴어있다.
장교2, 손가락으로 파이프를 닦는다.
먼지가 수북하게 손가락에 묻어난다.

장교3 : (장교2를 보며) 이거 한 3년쯤은 사용안한 것 같군

S#77 호보켄 부둣가
장교들과 안상영 배에서 내려온다.
배에서 내려온 최영남이 옆에 서 있는 안상영을 보면서 묻는다.

최영남: 수리비용은 얼마나 들겠습니까?

안상영, 옆에 같이 서있는 배나온 미국인 직원에게 묻는다.
안상영과 배불뚝이 직원이 서로 즐겁게 대화한다.

안상영: 7000달러랍니다.

놀라는 장교들, 자기들끼리 수군 댄다.
최영남, 손가락셈을 한다.

최영남: (옆의 장교들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안돼... 예산에 안 맞아.
(고개 돌려 배불뚝이 직원을 보면서) 예산에 좀 안 맞아서
그러는데 어떻게 좀 싸게 안 되겠습니까?

안상영, 고개를 돌려 배불뚝이 직원에게 이야기를 한다.
궁정적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분위기이다.
웃으며 대화한다.
서로엄지손가락을 올려가며 협상이 되는 분위기다.
장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진다.
웃으며 장교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안상영.

안상영: (무표정으로 단호하게) 안된답니다.

장교들 조금 당황하는 눈빛이다.
바다 새는 계속 혼자서 깹깹거리며 울고 있다.

안상영: 여기 아메리카에는 노무자들 임금이 비싸서,..
그 이하로는 어렵겠습니다.
동국: (앞으로 나서며) 그럼,. 우리가 하겠습니다.
안상영: (놀라며) 예??
김동국: 우리가 하겠단 말입니다. 노무자들 대신해서
우리가 수리하겠습니다.
어떻게만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다른 장교들 괜찮은 생각이라는 듯 안상영을 주목한다.
배불뚝이 직원에게 영어로 물어보는 안상영.
배불뚝이 직원, 안상영의 말을 듣고는 장교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더니
안상영에게 뭐라고 말한다.

안상영: 그럼 기타 수리 부속 이라던지 장비, 비용 다해서
2000달러에 해주겠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는 장교들 서로 껴안는다.
낮은 화이트헤드 소위 호의 모습을 보며 혼자 생각에 잠기는 최영남

S#78 호보켄 부딪가(낮)

활기 넘치는 부딪가의 모습 장교들 작업복을 입고

다들 열심히 일한다. 즐거운 모습이다.

이리저리 자세를 나르고 함선에 기름칠을 하고 녹을 벗겨낸다.

부러진 곳에 용접작업을 하고 망치로 구부러진 곳을 펴는 등

적극적이고 부지런하다.

배블룩이 직원은 장교들에게 이런 저런 지시를 한다.

S#79 화이트헤드 소위호의 안(밤)

잠을 자고 있는 장교들의 모습.

좁은 배안에 웅기종기 모여서 잠을 자고 있다.

S#80 호보켄 부딪가(낮)

장교들 배 위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작업복을 입고 즐겁게 식사를 한다.

어김없이 작업에 열심히 인 장교들 망치질과 사포질을
해가며 배를 고치는 중 이다.

그 속에 동국과 성호의 모습도 보인다.

멀리서 담배를 피며 작업하는 것을 지켜보던 최영남이

담배를 버리고는 동국과 성호를 부른다.

최영남: 동국아, 성호야..!

영남의 목소리에 하던 일을 멈추고 영남을 보는 동국과 성호

영남에게 달려가는 김동국과 이성호

김동국: 왜 그러십니까?

최영남: 야 너희들은 오늘부터 일하지 말고 여기로 가라

해양대학교 마크가 그려진 종지와 원서

비슷한 종지와 편지 같은 것을 동국에게 건네는 최영남.

최영남: (배를 바라보며) 저 배가 지금은 저렇지만

조만간에 막강한 3인치 포를 (두 손으로 원을 만들며)

장착한 전투함이 될텐데...

근데 문제가 우리 해군에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최영남을 바라보는 동국과 성호

최영남: 너희들이 여기 해양대학교로 가서 3인치 포 운용 법을
좀 배워 와라. 모두 협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그 서류 주고 말하면 잘 가르쳐 줄꺼다.

성호: 저희 둘 다 말입니까? 여기 일도 많을 텐데...

최영남: 그래 여기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함포 기술 배우는데
전념해! 거기서 친절하게 가르쳐 줄꺼다.

S#81 킹스포인트 해양대학교

차렷 자세로 서있는 동국과 성호 덩치 큰 교관이 둘의
얼굴 앞에서 큰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다.

튀는 침과 위압감에 눈을 질끈 감고 몸을 뒤로
빼고 있는 두 사람.

최영남의 말과는 너무 반대되는 상황이다.

커다란 모형 포탄을 들고는 죽어라 운동장을 달리는 동국과 성호
옆에서는 교관이 소리치며 따로 온다.

육을 하는 건지 용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다.

멀리서 느긋한 표정으로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안상영의 모습
서로에게 포탄을 던지고 누웠다가 일어서서

다시 받았다는 훈련을 하는 두 사람.

힘이 들어서 말없이 땀 흘리며 훈련에 전념하고 있다.

S#82 호보켄 부둣가

인수단들의 손길이 분주해 지고 점점 제 모습을 갖추어 가는 배
최영남과 나머지 장교들 손길이 바쁘다.

S#83 킹스포인트 해양대학교

3인치 함포를 좌우로 이동시키는 레버를 돌리는 동국.

익숙하지 않아 돌리기 힘겨운 듯 속도가 느리다.

포탄을 주고받다가 땅에 떨어뜨리는 두 사람.

교관의 눈치를 본다. 무서운 표정의 교관.

엎드린 두 사람의 모습. 팔굽혀 펴기를 실시 중이다.

멀리서 벤치에서 낮잠을 자는 안상영의 모습이 보인다.

S#84 호보켄 부둣가

이제 전함다운 모습이 되어가는 배.
3인치 함포를 조심스럽게 장착한다.
'천천히'를 소리치며 신중하게 장착한다.
인수단 장교들 배 위에 올라간 함포를 보자 뿌듯한 표정들이다.

S#85 킹스포인트 해양대학교

3인치 함포 운용실습을 하는 동국과 성호.
성호는 함포에 올라타고 있고 함포의 좌우 방향을 조절하는 레버를
동국이 엄청난 속도로 돌리고 있다.
팔이 아파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온 몸에 땀이 비 오듯 흐른다.

S#86 호보켄 부대가

페인트칠을 하는 인수단 장교들.
배 곳곳에 올라타서 회색 페인트를 칠한다.
이제 진짜 전투함다운 모양을 보이는 화이트헤드 소위 호

S#87 킹스포인트 해양대학교

동국과 성호가 모형포탄을 들고 뛰고 있다. 이제 엄청난 속도다.
힘든 기색 없이 잘 뛴다. 같이 달리는 교관도 great!!만 연발한다.
안상영이 얼굴에 책을 덮고 벤치에 잠들어있다.
코까지 골며 폭 잠든 모양.
누군가가 안상영에게 접근한다.
안상영의 배 위로 떨어지는 모형포탄.
안상영 고통스러워하며 눈을 뜬다.
동국이 웃으며 서 있다. 뒤에 서 있던
성호도 웃으며 안상영에게 포탄을 던진다.
포탄을 배에 한발 더 맞고는
고통스러워하는 안상영
3인치포의 좌우조절 레버를 신나게 빠른 속도로 돌리는 성호.
3인치포의 상하조절 레버를 빠른 속도로 돌리는 동국.
조절이 끝났는지 차렷하고 서있다.
교관이 무서운 표정으로 두 사람 옆으로 다가온다.
그들을 한번 보고는
3인치포의 이곳저곳과 가늠자를 살핀다.
살피더니 미소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든다.
그 모습에 함박웃음을 지으며 서로를 껴안는 동국과 성호.

S#88 호보켄 부둣가

인수단 장교들이 화이트헤드 소위호의 위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맥주를 마시고 있다.
다들 행복해보인다. 안주를 들고 나오는 장교1.

장교1: 자~안주가 왔습니다.

안주라는 소리에 입이 벌어지는 장교들
장교들 즐거워 하다가 안주를 보고는 풀이 죽는다.
한눈에 보기에다 느끼할 것 같은 고기뿐이다.

장교3: 아,,고기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는 질린다. 정말..
김동국: 그러게 어디 김치라도 좀 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인수단 장교들:, 아! 김치~!!

다들 김치를 그리워하며 하늘을 쳐다본다.

장교2: 아,. 김치 한번만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다.
이성호: 뭔가 생각난 듯 그럼 우리 만들어 먹는 건 어떻습니까?

동국을 비롯한 장교들 눈이 반짝인다.

이성호: 저때 보니 여기 시장에도 배추며 고춧가루며 다 팔던데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최영남: 그럴까?? 그거 좋겠는데(인수단을 한번 둘러보고)
 그럼 김치 말 꺼낸 동국이가 다 사와!
동국: 예?? 제가요?

동국의 황당한 표정
다른 장교들은 환호한다.

장교들: 김동국! 김동국! 김동국!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서는 동국

S#89 뉴저지의 거리(낮)

두 손 가득 김치재료거리를 손에 든 동국.
장교정복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이제 어느덧 미국이라는 나라에 익숙해진 동국.
거리의 이곳저곳을 자연스럽게 구경을 하며
걸고 있는 동국.
뒷골목 불량배들이 지나가는 동국을 바라본다.
동국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수군대다가 동국에게 접근한다.

불량배1: (비꼬는 말투) Wow! hey look at this!!
what is this!! this jap looks great!!
자막: 이게 뭐야? 웬 일본 놈이 멋지게 옷을 빼입었는데?

불량배2: hey! Watch out!! Kamikaje may be boom new jersey!
자막: 조심해! 카미가제 특공대가 뉴저지를 폭격하러 왔나본데!

동국, 그들을 무시하고 지나가려 한다.
길을 막아서는 불량배3.
동국의 손에서 식재료를 가로챈다
봉투를 열어보는 불량배3, 안에서 배추를 꺼낸다.

불량배3: What's this? is this Cabbage??
where you use it!??
자막: 뭐야 이걸.. 이거 뭐 배추 아니야??
이걸 어디 쓰려는 거지??

동국: 돌려줘..

불량배3돌려주는 척하다가 동국의 모자를 뺏는다.
그러고는 불량배1에게 던진다.
불량배1 모자를 쓰고는 비꼬듯이 경례를 한다.
불량배들 자기들끼리 좋다고 배를 잡고 웃어댄다.
동국 화나 치밀어 오르는 표정이다.

동국: (소리치며)이 자식들! 내 놓지 못해!!

불량배2 동국의 멱살을 잡고는
자기 얼굴 앞으로 동국을 잡아당긴다.

불량배 3은 들고 있던 배추 한포기를 바닥에 던진다.

불량배2: fuck up! What are you talking now?
little kid~!

자막: 이 새끼가... 뭐라는 거야! 꼬맹아~!

동국 화가 난 듯 그대로 상대의 얼굴에 박치기를 날린다.
난투극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격해지는 난투극

S#90 경찰서 유치장 안

동국이 유치장에 갇혀있다. 난투극에 제복이 엉망이다.

옆에는 데이빗이 앉아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동국과 데이빗

S#91 경찰서 안

유치장을 빠져나가는 데이빗과 데려나가는 헤일리

S#92 유치장 안

동국 고개를 숙인 채 보니 구두에 얼룩이 묻어 더러워져있다.

구두에 묻은 먼지를 닦는 동국 닦으면서 노래를 흥얼거린다.

더럽던 구두가 조금씩 깨끗해진다.

노래를 흥얼거리던 동국 고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유치장 철창에 붙어서 노래 부른다.

동국: 우리들은 이 바다 위에 이 몸과 마음을 다바쳤나니!
바다의 용사들아 돛 달고 나가자 오대양 저 끝까지 나가자!
푸른 바다로 우리의 사명은 여길세 지키자 이 바다 생명을 다하여!

O.L.

S#93 해양대학교

해양대학교 교정을 거니는 동국과 헤일리. 호수 옆으로 난 길을 걸으며
다정하게 이야기 중이다.

헤일리: (웃으며) 그래서 결국 김치는 만드셨나 보네요?

동국: 예,, 뭐 만들어서 오늘 보란 듯이 식당에서 먹었죠.

헤일리: (동국의 말에 웃는다) 김치,, 엄마아빠랑 있을 때는
많이 먹었는데 여기 와서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김치 냄새 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동국: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지 않나요?
헤일: 예, 지금 여기서 남동생이랑 살아요,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 하와이에 계세요. 젊은 시절에 하와이로 오셔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와이에서 LA로 오셨죠.
거기서 절 낳으셨고 전 남동생이랑 지금의 뉴욕으로 왔어요..
대단하죠! 우리집안..
동국: 고생이 많았겠네요,, 대단해요...근데 왜 그렇게 까지
집을 떠나 이 먼 곳까지 온거죠??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헤일리: (빠친 척 하며) 요즘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여자라니요
동국: (당황해서 해명하는 말투)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도 신문기자라는 훌륭한 직업도 얻으시고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헤일리가 걷다가 호수 옆의 나무에 기댄다.

헤일리: (당황하는 동국의 모습에 웃으며) 기자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신부님께서 신문사에
추천 해주셨어요. 그냥 제 능력으로...
동양인에 그것도 여자가.. 힘들었겠죠..

**조소하듯 호수를 보며 미소 짓는 헤일리.
그런 헤일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동국.**

헤일리: 집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거기 있으면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가 사셨던 것처럼,
엄마, 아빠가 사는 것처럼 그게 싫었어요...

헤일리의 말을 들은 동국은 이해한다는 듯 바라본다.

헤일리: (동국에게 고개를 돌리며) 그럼 동국 씨는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동국: 글썄요... 저도 제가 무엇 때문에 왜 여기까지
와 있는지...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씩 알 것도 같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지...

헤일리가 기대고 있던 나무에서 일어난다.

헤일리: 다음에 또 봐요 오늘 즐거웠어요,,
 다른 여러분들 이야기도 듣고 싶네요.
 꼭 찾아 갈게요.

말을 끝낸 헤일리, 미소 지으며 동국에게 악수를 청한다.

동국, 헤일리의 손을 당황하며 잡는다.

인사를 마치고 떠나는 헤일리.

헤일리, 걸어가다 뒤로 돌아 동국에게 말한다.

헤일리: 전 아저씨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알 것 같아요.
 아저씨, 아저씨 멋진 사람인거 같아요,
 진심으로요!

헤일리 말을 끝내고 뒤돌아 걸어간다.

동국, 헤일리의 말에 넋을 잃고 걸어가는 헤일리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S#94 호보켓 부딪가(낮)

터지는 카메라 플래쉬.

카메라 플래쉬에 놀라는 인수단 장교들

미국인 사진기자가 사진을 찍고 있다.

일을 하는 인수단들의 모습과

화이트헤드 소위 호를 여기저기 찍는다.

연신 와우를 남발하며 오버하는 미국인 사진기자.

잔뜩 얼어붙은 장교들은 평소처럼 일하지 않고 사진기자

눈치 보기 바쁘다. 다양한 포즈를 요구하는 사진기자.

동국도 기자의 요구에 맞춰서 다양한 자세를 잡고 있다.

헤일리는 최영남을 인터뷰하고 있다.

최영남은 땀까지 흘리며 긴장하고 있다.

연신 손수건으로 코와 이마의 땀을 닦는 최영남.

헤일리: 여기서 이제 2개월째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건데
 특히 어려운 일 같은 건 없었습니까?

최영남: (혼자 생각하다가)예.

헤일리, 뒤에 말이 이어지는 줄 알고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기다리는데 아무 말도 더 이상 나오지 않자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며

헤일리: (작은 목소리로) 조금 길게...

최영남: (눈치를 보다가 헤일리의 목소리에 맞춰 작은 소리로)
예.....

성호를 인터뷰하는 헤일리.

헤일리: 와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이었군요.

이성호 지나친 호감을 드러내며 헤일리에게
바짝 붙어서 느끼한 눈빛을 보인다.

성호: 그렇죠, 엄선된 인재들만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겁니다.

조금씩 다가가는 성호와 한결음 씩 물러서는 헤일리.

헤일리: (한결음씩 물러서며)함포 사격술도 배우셨다고

성호: (한결음씩 다가가며)예, 인수단 중에서도 학습능력이
가장 우수한 제가 미국 시스템에 안성맞춤이라는
결정이었죠.

헤일리: (한결음씩 물러서며)김동국 씨와 같이 한 거 아닌가요?

성호: (손가락으로 가로저으며)으음. 그게 아니죠.
(배 옆에 서 있는 동국을 가리키며)저쪽은 조수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스페어타이어 같은 거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호의 눈빛 갈수록 느끼하다. 부담스러운 헤일리 성호의 눈을 피해
배 쪽을 보며 말한다.

헤일리: 저기 지금 사진 찍는데요?

헤일리의 말에 고개를 돌리는 성호.

사람들이 단체사진을 찍으려 준비하고 있다.

다들 긴장한 인수단의 모습과 더 긴장한 최영남.

인수단 장교들이 화이트헤드 소위 호를 배경으로 서있다.
동국이 밝은 표정으로 웃는다.

사진사: 원, 투,

성호: (다급하게)잠깐잠깐 잠깐!

소리치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드는 성호.
급하게 맨 귀통이에 선다.

사진사: 쓰리!

찰칵 소리와 함께 사진이 찍힌다.
성호는 절묘하게 몸의 한쪽 절반만 찍힌다.
화면이 멈추면서 흑백사진처럼 변한다.

S#95 헤일리의 집 앞(밤)

헤일리의 집 앞으로 걸어오는 동국과 헤일리.
신나서 떠드는 헤일리와 헤일리를 보며 경청하는 동국.

헤일리: 그래가지고 그 대머리 영감탱이가
 화가 나서는 기사거리 찾아와!!
 하고는 다 내쫓는 거예요!
 자기는 매일 사무실에 박혀서 야구중계나 들으면서
 진짜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헤일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짓는 동국.
투덜거리는 헤일리가 사랑스러워 보인다.
헤일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집 앞이다.

헤일리: 어라,, 벌써 다 왔네?..고마워요. 바래다줘서
동국: 바래다주긴요. 길도 모르는데요.
 이제 어떻게 돌아가야지??
 어떻게 가는지 좀 가르쳐 주실래요?
 아니면 바래다주시던가?

동국과 헤일리 웃는다.

동국: (진지하게)헤일리씨는 언제나 긍정적인 것
같아요. 밝고 명랑하고...보기 좋네요.
부러워요...그런 모습

밝게 웃는 두 사람의 웃음이 조금씩 어색해진다.

동국: 그럼,. 뭐 다음에 뵈요,.
헤일리: 예... 뭐 그럼,.

동국, 이제 부엌가로 가려는지 돌아선다.

헤일리: (다급히) 저기,.

헤일리의 부름에 돌아보는 동국.

헤일리: 저녁도 못 드셨는데 괜찮으시면
(눈을 못 마주치며)저희 집에서
저녁이나 드시고 가실래요??

헤일리의 말에 놀라는 표정의 동국.

헤일리: 한국 음식은 잘 못하지만요,,.

헤일리와 동국 그 말에 함께 웃는다.

S#96 헤일리의 집/ 부엌

저녁을 먹고 있는 헤일리와 동국.

한층 즐거운 분위기로 다정한 연인 같다.

헤일리: 제가 말이 너무 많죠!!
동국: 아닌 걸요~ 제가 좀 말주변이 없고
낮을 가려서 재미없는 사람인데
너무 재밌네요,,미국에 온 뒤로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헤일리: 낮 가리는 사람이 노래는 잘하던데요?

동국과 헤일리 웃는다.

한창 즐거운 분위기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다.
 쿵쿵쿵!!! 헤일리가 소리를 듣고는 문으로 다가간다.
 문을 여는 헤일리 문으로 데이빗이 들어온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데이빗

들어온 데이빗, 찬장을 열고는 술을 찾는다.
술병을 들고는 소파에 앉는 데이빗

헤일리, 데이빗의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못한다.
술을 마시던 데이빗 동굴을 발견한다.

데이빗에게 달려들려는 헤일리를 동국이 말린다.
데이빗, 술병을 벽에 던진다.
놀라는 동국과 헤일리

왔습시다. 하는 것 보다 백배 낫다고!!
데이빗: 약해서 자기 나라도 지키지 못하고...
그 나라에 살지도 못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
사탕수수만 캐셨어,.. 자기나라사람들
그렇게 만든 나라보다 일본놈 중국놈이라는 소리가
백배 낫다구!! 내 인생을 이따위로 만들지 마란 말이야!!!!

동국, 데이빗에게 뛰어가서는 데이빗을 잡고 거칠게 벽에 몰아붙인다.

헤일리, 비명을 지른다.

동국, 데이빗의 목살과 팔을 잡고는 벽에 붙이고 제압한다.

동국: 너만 그런 것 같애?? 너만 인생이 불행한 것 같애??
웃기지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척 그만해!
비겁한 겁쟁이...술 취했다고 어리광이 통 할꺼라고 생각 하지마!
전쟁?? 네가 전쟁을 알아?? 죽음의 공포가 네 목을 조여 오는 그
고통을 알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비명소리와 살이 타는
냄새, 피 냄새로 가득한... 그리고 그 다음이 나일지 모른다는
절망적인 두려움!! 그걸 네가 알아??

동국이 점점 목을 조이자 데이빗의 고통스러워한다.

동국, 힘을 풀고 데이빗을 놓아준다.

데이빗 고통스러운 듯 쿨룩거리며

땅바닥에 주저앉는다.

동국: 어리광 부리지마 그런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아,
나도 너랑 똑같아! 현실에서 도망치려고만 하고
그래서 결국 소중한 것을 지킬 용기도 없는 겁쟁이야...
하지만..포기 하지마. 좀 더 가치 있게 살아봐!
그럼 니 아들, 그게 아니라면 니 아들의 아들...
그 때는 지금의 너처럼 울지 않아도 될테니까.

앉아서 울고 있는 데이빗.

헤일리, 데이빗과 동국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본다.

S#97 헤일리의 집/ 현관 앞(밤)

동국과 헤일리 집밖으로 나온다.

동국: 본의 아니게 소란을 피웠네요,,
헤일리: 아니예요 혼날만한 짓을 했죠 뭐,,
동국: 동생 분께는 미안했다고 전해주세요,,
헤일리: 미안하긴요... 동국씨 말이 맞아요....
 동생도 많은 걸 깨달았을 꺼예요..
 저도 그렇구요.

두 사람, 잠시 숙연하게 말없이 땅을 보고 있다.

동국, 고개를 돌리다가 옆 상점의 크리스마스 장식이 눈에 들어온다.

동국: (머뭇거리며)이런 상황에 할 말은 아니지만
 며칠 후가 크리스마스인데... 그때도 아마 바쁘시겠죠?
헤일리: (생각하다)글쎄요. 그날 별 다른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동국: (헤일리의 눈치를 살피고 쭈뼛거리며) 예.., 저기,, 그
 실례가 안 되신다면 그 날,, 저랑 만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헤일리: (놀라는 표정을 하다 웃으며) 아니 지금 이 상황에
 데이트신청이에요??

헤일리의 말에 놀라는 동국.

동국: 아,, 예,, 그렇죠 상황이 아니죠, 제가 실례했습니다.
헤일리: (웃으며) 아뇨 좋아요 데이트 신청 받아들일게요,,
동국: 정말입니까? 약속했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주무시구요!!

동국 인사를 끝내고는 황급히 떠난다.

떠나는 동국의 모습을 보며 헤일리, 미소 짓는다.

S#98 호보켄 부대가(낮)

인수단 장교들이 모두 모여 있다.

사다리배에 올라가 앞부분에 하얀 페인트로 크게 새긴다.

‘701’

(참조- 화이트헤드 소위 호는 지금부터 701함 혹은 백두산 함으로 이름 변경)

최영남: 우리 해군의 첫 전투함. PC- 701

페인트로 마킹이 되자 701은 이제 완벽한 전투함이 되었다.
웅장한 위용이 멋지게 보인다.
인수단 장교들 모두 감격한 눈빛이다.
그때 배불뚝이 직원이 다가온다.
701을 보고는 감탄한다.

배불뚝이 직원: Wow! it's beautiful~!

엄지손가락을 내밀며 이성호에게 웅크한다.

배불뚝이 직원: Good job!

성호, 가소롭다는 듯 웃는다.

이성호: 당연하지, 새끼 누가 만들었는데.

웃는 이성호를 보며 배불뚝이직원도 같이 입 꼬리를 올리며 웃는다.

배불뚝이 직원: 메리크리스마스! 송호! (말을 마치고 걸어 나간다)

성호: 오우! 너도 메리크리스마스 투!

최영남: (인수단을 둘러보며) 그래. 아무튼 내일은 크리스마스니까
모두 자유롭게 시간들 잘 보내도록
크리스마스 다음날 명명식이 끝나면 그때는 출항이다.
다들 각오 단단히 하고 즐겁게 놀고 와!

인수단: 예!!

각자 뿔뿔이 흩어지는 인수단 장교들.

성호, 김동국에게 어깨 동무를 하며 말한다.

성호: 크리스마스면 뭐하냐~ 누구랑 뭘 하고 노랴 말이야!
여자도 없는데 아,..동국아 우리 내일 뭐하고 보내야 되냐??

동국: (거만한 표정으로) 난 약속 있어.

이성호: 오호 어쭙 이 자식 봐라~ 이 녀석 능력 있어~
무슨 이 억 만리 미국 땅에서도 여자를 꼬셔?
이거 아주 웃기는 놈 이구만!!

부러운 듯 동국의 머리를 손으로 강하게 문지르는 성호.

동국: (성질내며)아씨!
성호: 어쭈!! 너 임마 크리스마스가 뭔지나 아냐?
임마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이야 임마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나 하고 지내
이 자식아!!

동국을 따라가서 뒤통수를 때리는 성호
두 사람 웃으며 나 잡아봐라 놀이를 한다.

S#99 701의 배 안
몸단장에 신경 쓰는 동국.
이리저리 자기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며 신경을 쓴다.
거울의 자기 모습에 웃으며 나가는 동국.

S#100 호보켄 부둣가(아침)
집에서 나오 듯 문을 열고 배 밖으로 나오는 동국.
신나서 배에서 부둣가를 걸어 나간다.
콧노래까지 부르며 얼굴에서 연신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

S#101 뉴욕 시내
시내를 거니는 동국과 헤일리의 모습 즐거워 보인다.

S#102 영화관 안
재밋게 영화를 보는 두 사람.
동국은 영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헤일리의 옆모습을 관찰한다.
헤일리는 영화를 재밋게 보는 중이다.
헤일리와 극장 안 관객들 웃음을 터트린다.
동국 웃지 않다가 분위기 봐서 웃는다.
웃다보니 타이밍을 놓쳐서 혼자 웃고 있다.
극장 안 관객들 모두 동국을 쳐다본다.
머쓱한 표정의 동국과 그런 모습에 미소 짓는 헤일리.

S#103 중국 음식점
즐거운 모습으로 오붓하게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 헤일리와 동국.
행복해 보인다. 동국은 한껏 들떠서 손짓 발짓 다 해가며 헤일리를

웃기고 있다.

S#104 헤일리의 집 앞 골목(밤)

두 사람 저번보다 한결 친근해진 모습이다.

웃고 떠들며 걸어온다.

헤일리: 근데 이제 내일 출항이시라면서요??

동국: 예, 일정이 빠듯해서 내일 명명식 한 다음에
바로 출항할 겁니다.

헤일리: 아, 그럼 바로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동국: 예, 뭐 아마도.

헤일리: 그럼, 이제 거기서 계속, 지내시겠네요??
미국에는 안 오시고...

헤일리의 말에 아쉬운 감정이 생겨 말없이 길을 걷는 두 사람.

어느새 집 앞에 도착한 헤일리와 동국

헤일리: (집을 가리키며) 아! 그럼, 이제...

동국: 네, 저기...오늘 즐거웠어요..

헤일리: 아, 저두요..

동국: (할 말이 있는 듯 우물쭈물 거리다)
저기, 내일은 오시는 거죠??

헤일리: 아, 네! 가야죠..(웃는다)

이제 헤어짐이 다가오는 두 사람. 뭔가 아쉬운 감정이 묻어난다.

헤일리: (손바닥을 마주치며)아!

헤일리, 갑자기 자기 가방을 뒤진다.

어리둥절한 동국.

헤일리가 지갑에서 자기사진을 꺼낸다.

헤일리, 사진을 한번 보고는 동국에게 사진을 건넨다.

사진을 받고는 헤일리를 바라보는 동국.

헤일리: 감사의 표시예요. 기사 취재하는데
도움도 많이 주셨고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그래서 드리는 건데 가서도 저 잊지 마시고
한번 씩 제 사진보면서 기억해주세요..

동국: (헤일리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고마워요.

아쉬운 듯 입을 여는 헤일리.

헤일리: 그럼, 잘 지내세요..

동국: 예, 그쪽도요

헤일리, 인사를 마치고는 집에 들어가려 돌아선다

동국: 저기,.

동국의 부름에 다시 돌아서는 헤일리.

동국: 저기,..혹시 제가 언젠가,
아니 곧 여기로 돌아온다면 그때는
다시 만나 주실꺼죠?

헤일리, 약간 당황하는 표정

헤일리: (잠시 생각하고는) 예, 기다릴게요.,

말을 마치고는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 헤일리.

S#105 헤일리의 집 안

문을 닫고는 문에 기대는 헤일리. 당황했지만 설레는 표정이다.

S#106 헤일리의 집 앞(밤)

사진을 들고 제자리에 가만히 서있는 동국.

미소 지으며 돌아서서 걸어간다.

S#107 호보켄 부둣가(아침)

인수단 장교들, 아침부터 매우 분주한 모습이다.

배에 물건을 싣고 내리며 바쁘게 움직인다.

최영남, 이리저리 지시를 내리고 있다.

항해를 나설 채비를 하는 701.

장교4: 함장님 포탄은 얼마나 신청하면 되겠습니까?

최대 적재량은 1000발인데 1000발 다 채우는 겁니까?

최영남: 그것도 다 돈 아니야.,돈 없어! 지금 기름 넣을 돈도 없다.

100발만 신청해.
장교4: 예,, 알겠습니다.
최영남: (물건을 가지고 걸어오는 장교 두 명을 가리키며)
거기 걷고 있는 놈들은 뭐야!!지금 시간 없어!!
다들 서둘러!!

S#108 룡아일랜드 미 해안경비대 제8부두(낮)
조용한 가운데 군악대 지휘자가 손을 올렸다가 내린다.
손짓에 맞추어 군악이 울려 퍼진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자막: 1949년 12월 26일 미 해안경비대 제8부두

명명식의 막이 오른다.
701함 앞에 서있는 인수단 장교들을 손원일 제독이 돌아가며
한명 씩 악수를 한다.
최영남, 이성호, 김동국이 차례로 지나간다.
그리고 장교1,2,3,4와 기타장교들의 얼굴들이 보인다.
지금까지 인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지나간다.
해양대학교 교관, 안상영, 배불뚝이 직원,
기타 몰려나온 한국교민들과 데이빗도 있다.
그리고 데이빗 옆에 헤일리가 보인다.

손원일: 이제 화이트헤드 소위 호는 대한민국 해군의 전투함.
백두산 함으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자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이어진다.
헤일리, 박수를 치다 뭔가 생각이 났는지
옆에 있는 데이빗을 보며 이야기한다.

헤일리: (박수를 치며)조금 재밌지 않아? 세상에서 사라졌던
화이트헤드가 한국인들의 손에 다시 태어나
다시 화이트헤드, 백두가 되다니 말이야...
데이빗: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그러게,, 우연치곤 재밌네.
운이 따를 건가봐.

마스트에 태극기가 천천히 게양된다.
게양이 끝난 후 군악대 지휘자의 손짓에 맞추어 군악대가

애국가를 연주한다. 천천히 울려 퍼지는 애국가의 선율
교민과 한국군관계자 모두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한다.

교민과 한국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만세....

애국가를 부르는데 최영남이 울음을 터트리기 시작한다.
그 모습에 다른 인수단 장교들도 모두 울음을 터트린다.
교민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고 식장이 온통 울음바다가 된다.

교민과 한국군: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애국가가 끝나고 교민들 모두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기 시작한다.

교민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하는 모습을 찍는 미국인 사진기자.
카메라 소리와 함께 멈추면서 화면이 흑백사진처럼 변한다.
O.L.

S#109 Jersey journal 신문사 사무실

헤일 리가 타자기 앞에 앉아있다.

타자를 치는 헤일리. 타이핑이 끝난 듯 타자기에서 손을 내려놓는다.

타이핑을 끝내고 옆에 놓인 기념사진을 보는 헤일리.

사진 속에 밝게 웃는 동국의 모습이 있다.

그 모습에 미소 짓는 헤일리.

P.O.

S#110 대한민국 남해

P.I.

어선 한척이 바다에 떠있다.

몇 사람의 어부가 바다 위에서 태평하게 그물을 손질한다.

어부1: 뭐라 하노!! 그게 다 빨갱이들이

그러게 해꼬지를 해서 안 글라.

어부2: 암만 그라도 빨갱이들이 그렇게 까지 했겠나?

어부3: 맞다 마 경석이 아버지 말이 맞다.

어부3: 라디오에서도 다~그라드라!

전번에 여수에서도 그랬다 아이가 제주도도 똑같지 뭐

어부4, 말없이 그물손질을 하다가 고개를 드니 멀리서 뭔가가 오고 있다.

어부4, 집중해서 보다가 잘 보이지 않는 듯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본다.

어부4: 야, 야, 야들아, 저기 저거 군함인거 같은데.

어부1: 닌 또 뭐래샀노! 우리나라에 군함이 어데있노

어부4: 아인데... 진짜 군함인거 같은데.. 한번 보그라.. 맞는데..

어부2: 뭐라노, 아이고 왜놈들이 다시 쳐들어오는 거 아이가??

어부들 하던 일을 멈추고

다들 일어서서 다가오는 배를 관찰한다.

어부3: 잠깐만, 잠깐만 저기 위에 저거 태극기 아니가??

배의 마스트 위에 힘차게 펄럭이는 태극기.

바다를 가르는 백두산함의 위용.

어부1: 야, 태극기 맞네! 저거 우리나라 배 맞는 갑다!!

어부2: 엄청나네!!

어선 옆을 지나가는 백두산 함

어부들 탄성을 지른다!

바다를 가르고 지나가는 백두산함의 멋진 모습.

S#111 바다위의 백두산 함

바다를 누비는 백두산함의 모습과 그 사이사이에 신문들이
인서트 된다.

1.<보라!! 대한민국의 전투함 백두산 함!>

2.<백두산 함 전국 순회! 구경꾼 인산인해>

3.<백두산 함. 해군 최고의 엘리트 장교, 하사관, 수병으로 승선완료!>

4.<바다는 이상 무! 대한민국의 비밀병기 백두산 함!>

5.<바다를 뒤흔드는 3인치의 위력!>

S#112 술집

아저씨들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중이다.

손님1이 생각난 듯 말을 꺼낸다.

손님1: 자네들 그 얘기 들었는가??

손님2: 뭘 이야기 말이여?

손님1: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최신의 전함 백두산함!

손님2: 아 들었지 그 최신행 전함 이라던디, 말이여

손님3: 그래!! 그 배가 엄청나게 좋은 배라 하던디!

손님2: 뭐가 얼마나 좋은배라는겨?

손님3: (약간 망설이며)중,중,..데!! 미국 놈들이 쓰는 거랑 똑같은거래!

손님1: (놀라며)그러? 그 정도여??

손님3: 잉, (확신하며)엄청나게 최신키리야~!

손님1: 음마야. 돈 많이 썼겠구먼

손님2: 그게 북쪽 빨갱이 놈들 꺼 보다는 더 좋은거겠지?

손님1: (한심하다는 듯)아이고 말도 말어! 최신키린다!

어떻게 더 좋을 수가 있겠어!!

손님2: (다행이라는 듯)그래 아무튼 걱정이여.,

빨갱이 놈들 여기서 사고! 저기서 사고!

조용할 날이 없어! 지금은 저기 3.8선에서 군인들도

엄청나게 모은다나벼~

손님1: 음마 무서워 부러야, 그래도 별일이야 있잔디..?

손님3: 그래 별일이야 있잔디

손님2: 없어야,..

S#113 해군사령부/ 계단 복도

다급하게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 너무도 다급해 보인다.

복도를 달리는 발걸음 카메라가 tilt-up되니 다급한 표정의 해군장교의 얼굴 이리저리 복도를 살피며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한다.

사령관실 앞에 서서는 노크도 없이 문을 쾅 연다.

S#114 해군사령부/ 참모총장실

방안으로 들어온 장교, 온몸에 땀을 흘리고 있다.

손원일,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무슨 일이냐는 듯 장교를 쳐다본다.

장교5: (허리를 숙이고 숨을 돌린다)하,...하,..

(고개를 들며) 놈들이, 놈들이 내려옵니다..

장교5의 말을 듣자 손원일이 손에서 찻잔을 떨어뜨린다.

바닥에 떨어지며 부쉬 지는 찻잔.

손원일, 눈빛이 변한 채 움직이지 못한다.

자막이 떠오른다.

자막: 1950년 6월 25일

S#115 3.8선 부근(낮)

중화기로 무장한 인민군의 압도적인 화력에 무참히 쓰러지는 국군들
산발적으로 저항해 보지만 기관총 세례를 퍼붓는 인민군 앞에 역부족이다.

S#116 해군사령부/ 지하벙커

통신장비들을 갖추어진 작은 규모의 지하벙커의 가운데

테이블 위에 한반도 전도가 펼쳐지며 작전회의가 시작된다.

테이블 주위로 손원일을 비롯한 여섯 명의 참모들이 둘러서 지도를 보고 있다.

참모1: (지도 위에 표시를 하며) 현재 인민군 육상병력의
남하 속도가 견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포천, 춘천, 양양까지 모두 적들의 수중에 넘어갔습니다.

손원일: (화를 내며)육군 놈들 도대체 뭐하는 거야!!
지금!! 단 몇 시간 만에 다 함락 당했다는 거야??!!
(참모2를 보며)해안이나 해상! 우리 쪽 피해는 어떻게 돼?!

참모2: 육상병력의 남하와 동시에 특수부대를 해상으로 침투시켜
전후방을 동시에 타격하는 것이 적들의 작전으로 판단됩니다.
육상 병력의 전면 남하 이전에 이미 인민군 수송선이
차례로 동해상으로 남하하여 해안으로 인민군 병력들을
속속 상륙시키고 있습니다. 육계를 시작으로 울진, 포항 등은
이미 인민군의 상륙으로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S#117 해안가(새벽)

해안으로 상륙하는 인민군들 중화기로 무장하고

해안의 국군에게 무차별 사격을 하고 있다.

마을에 침투한 인민군들이 구덩이 앞에 민간인들을 일렬로 세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민간인들.
청년, 노인, 어린아이, 부녀자 구분 없이 일렬로 서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들의 뒤에서 인민군의 총이 불을 뿜는다. 앞으로 꼬꾸러지는 민간인들.

S#118 해군사령부/ 지하병커

지도를 보면서 이리저리 손가락을 움직이는 손원일.

손원일: 그래서 이제 다음은 어디야?!!

옥계, 울진 포항을 찍으며 차례대로 지도를 내려오는 손원일의 손가락.
손가락이 부산에서 멈춘다.

손원일: (눈빛이 흔들리며)부, 부산?

S#119 부산

평화로운 부산, 한가롭게 일요일을 보내는 사람들.
나무 밑에서 장기를 두는 노인들과 그 모습을 구경하는 구경꾼들.
마루에서 낮잠 자는 할머니, 활기찬 저작거리와
여전히 웃는 얼굴로 손님들에게 장사를 하는 동국엄마.
동국의 동생인 동철이도 동네 친구들과 딱지를 치고 있다.
제법 딱지를 잘 쳐가며 친구들 딱지를 많이 판다.

S#120 해군사령부/ 지하병커

손원일, 지도를 주먹으로 내리친다.

손원일: 부산은 안돼! 놈들한테 부산이 넘어가면 절대 이길 수 없어!!
부산은 지켜야 돼!! 부산을 잃으면 우리가 진다!

손원일, 지도를 보며 생각을 하다가
손가락으로 지도에 부산 옆의 진해를 가리킨다.

손원일: (참모1을 보며)진해에 지금 누가 있나??

참모1: 최영남 대령...백두산 함이 있습니다.

손원일: (놀라며)백두산?!!

S#121 술집 안

동국과 성호 그리고 수병3명이 막걸리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다.

성호: 그럼 일요일이니까 다들 긴장들도 풀고!
 지금까지 전국 순회한다고 피곤들도 할텐데 다 같이 건배!
 (뭔가 생각 난 듯) 참, 참, 건배하기 전에 이 자리를
 빛내고 술값도 지불하실 김동국 소령님을 위하여 건배!!
 수병들과 성호 웃으며 건배한다.

동국: 누가 그랬어!! 해군의 전통은 10%씩 모으기야 몰라??

동국의 말에 다들 웃는다.

성호, 막걸리를 한잔 들이키고는 잔을 내려놓는다.

성호: (인상을 쓰며)키야! 좋다!

성호, 술을 마시는 동국을 보며 말한다.

성호: 동국아, 너 집에 갈꺼지?

동국: 어, 이제 집에 가 봐야지. 엄마랑 동생도 본지도 오래됐고
 휴가 동안은 엄마 일도 도와드리고 집에서 쉬려고, 근데 왜?

성호: (좋아하며)야 그럼 나도 너희 집에서 지내자!
 어머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내가 지금 다른데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는데! 잘됐지?

동국: (고개 돌리며) 싫어,

성호: (양탈 부리듯)왜~!! 왜 그러는데!

동국: (손가락을 꼽으며)야 지금 내가 너랑 지금 몇 달째
 같이 붙어 다니는 줄 아냐?
 (진지한 표정으로)단 며칠만이라도
 우리 떨어져 지내자!! 응!?

동국의 말에 옆에서 바라보던 수병들도 다들 웃는다.

그때 술집 안으로 헌병이 들어온다.

갑작스러운 헌병의 등장에 말이 없어지는 장병들.

헌병: 701함 승조원들입니까??

성호: (주위를 둘러보며)예,, 그렇습니다만.,

헌병: 빨리들 나오십시오! 지금 긴급 상황입니다.

당황스럽지만 헌병의 말에 천천히 짐을 챙겨 술집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

남겨진 장병들이 먹던 술잔에는 아직 술이 가득 차있다.

S#122 술집 밖

술집 밖에는 군용트럭이 세워져있다.

트럭 뒤에는 한 가득 701의 승조원들이 타고 있다.

수병 한명이 동국을 보고는 소리친다.

수병1: 큰일입니다! 전쟁이랍니다! 전쟁!

놀라는 표정의 동국.

S#123 백두산 함/ 화장실

거울을 보며 군복을 가다듬는 동국.

문을 열고 화장실 밖으로 나간다.

S#124 백두산 함/ 복도

동국, 복도를 지나는데 복도의 수병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S#125 백두산 함/ 조타실

조타실에 들어가는 동국, 거기에 최영남이 있다.

최영남: (들어오는 동국을 보면서) 전쟁이라 그래서 한껏
 긴장하고 왔더니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군.
 잘못된 정보 아닌가?

동국, 갑판에서 멀미를 하고 있는 한 장교를 본다.

동국: 저 사람 군의관입니다. 평소 승함시키지 않던
 군의관까지 승함시킨걸 보면 확실히 무슨 일은 나도
 큰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국과 함께 갑판을 보는 최영남.

괜찮아진 것 같던 군의관이 다시 바다를 향해 토하기 시작한다.

최영남: (비웃으며) 잘도 치료하겠군...

S#126 백두산 함

계속 전진하는데 조금씩 하늘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다.

긴장하고 있던 승조원들도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모습이다. 자기들끼리

이야기 하며 웃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S#127 백두산 함/ 갑판

경계근무를 하고 있던 수병

좌우를 경계하는데 오른쪽 멀리서 검은 연기가 눈에 들어온다.

검은 연기를 발견하고는 배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수병.

S#128 백두산 함/ 조타실

이성호, 최영남에게 다가간다.

성호: 조사 결과, 지금 부산 방면으로
가는 허가된 화물선은 없습니다.

최영남: 멀리서 보기에는 보통 화물선 같은데,
지금 괴선박 방향은 그대로 인가?

수병: 예, 현재 괴선박은 10노트의 속력으로
부산을 향해서 계속해서 남하하고 있습니다.

최영남: 음, 안되겠군. 괴선박에 조금씩 접근하면서
선박의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괴선박에게서 응답이 올 때까지
신호를 보내도록.

승조원들: 예!!

S#129 백두산 함/ 갑판

망원경으로 괴선박을 주시하는 동국.

아직 거리가 멀고 어두워 실루엣만 보이고

정확한 선박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괴선박에 수기로 신호를 보내는 백두산 함

최영남과 이성호, 괴선박에 주목한다.

수기에 응답 없이 항해를 계속하는 괴선박.

괴선박에 라이트신호를 보내는 백두산 함

아무 반응 없이 항해하는 괴선박

괴선박의 모습을 동국이 망원경으로 바라본다.

S#130 백두산 함/ 회의실

최영남과 김동국, 이성호 그리고 나머지 장교5명이 회의실에 앉아있다.

최영남: 태평양전쟁도 끝난 이 시기에 일본이나
중국선박이 우리 영해로 들어올 리도 없어...

최영남: 그리고 국기도 없고... 우리의 신호를
세 시간째 모두 무시한다.

이성호: 그럼, 저건

최영남: 그래, 적선이 틀림없어,...

회의실의 장교들 사이로 긴장감이 감돈다.

최영남: (숨을 한번 고르고) 모든 승조원들은
전투준비를 완료하고 최대한 괴선박에
접근하여 정체를 확인한다.

S#131 백두산 함 / 복도

땡.땡.땡.땡.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자기 위치로 달려 나가는 수병들 일사 분란한 모습이다.

S#132 백두산 함/ 갑판

빠르게 전투위치로 이동하는 승조원들 기관총사수와 부사수들 위치하고
3인치포도 가동을 준비한다. 준비된 승조원들 표정이 진지하다

S#133 백두산 함/ 조타실

동국의 얼굴에 긴장한 표정이 가득하다.

S#134 백두산 함/ 갑판

괴선박을 쫓는 백두산 함 서로 매우 가까워졌다.

가깝지만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괴선박의 정체.

장교 한명이 갑판에서 망원경을 끼고 보다가 안 되겠는지

옆의 수병에게 말한다.

장교6: (신호조명을 가리키며)야! 저거 갑판 쪽으로 맞춰봐.

수병발광신호 조명을 이용하여 괴선박을 비춘다.

망원경을 끼고 보는 장교.

초점이 맞지 않던 망원경의 초점이 맞자

망원경에 검은 얼굴에 하얀 눈이 번득이는 인민군의 얼굴이 C.U.된다.

장교, 놀라움에 눈이 커진다.

망원경을 내리고 보니

괴선박의 갑판에는 각종 화기로 중무장을 하고

얼굴은 검게 위장을 한 인민군이

갑판 위를 빈틈없이 수백 명이 촘촘히 앉아있다.

그리고 선박의 가운데 설치된 85밀리 포와 기관총의 총구가 백두산 함을 향해 검은 입을 벌리고 고개를 드는 것이 보인다.

장교6: (뒤를 보며) 엎드려!!

장교6과 갑판 위의 수병들 납작 엎드린다.

그와 동시에 천지를 울리며 적선의 대포와 기관총이 불을 뿜는다.

백두산함의 함체 여기저기가 적의 포탄과 총알이 튀기며 번쩍인다.

S#135 백두산 함/ 조타실

백두산 함의 조타실이 적의 공격에 흔들린다.

흔들림 속에서 배의 이곳저곳을 잡고 균형을 잡는 장병들.

최영남: 역시! 놈들이었군!!

빌어먹을 새끼들!! 젠장!! 우리도 사격개시!!

S#136 백두산 함/ 갑판

갑판의 3밀리포의 사수와 부사수들 레버를 좌로 우로 돌리며

신중히 조준을 한다. 신중히 조준한 후 3밀리포의 사수가 방아쇠를 당긴다.

백두산함의 3밀리포가 불을 뿜는다.

쵩!! 화면이 느려지며 카메라가 포탄을 따라간다. 맞을 듯 날아가던 포탄이 적선의 옆에 바다에 떨어진다. 포탄의 낙하와 함께 화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바다에 거대한 물기둥이 만들어진다.

적선을 향해 불을 뿜는 ,백두산함의 측면 기관총

총알이 약간 썩 적선에 명중한다.

3밀리포의 탄약수들이 분주하게 포탄을 나르고 3밀리포를 장전한다.

다시 재 사격! 이번에는 적선의 앞에 포탄이 떨어지며 물기둥을 만든다.

연속으로 한발이 더 발사 된다 그러나 또다시 적선의 앞에 물기둥을 만든다.

S#137 백두산 함/ 조타실

성호: (화를 내며)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맞는거야!!

최영남: (손에 들고 있던 망원경을 바닥에 던지며) 돈이 없어서

실제 사격 훈련도 못 해본 애들이야..

이 거리에서 맞추면 그게 더 이상한거지...

(장병들을 둘러보며)적선에 더 밀착한다!

적선과의 거리를 50미터 이하로 줄인다.

동국: (영남의 말을 가로막 듯)함장님!! 그렇게 되면 아군 측
피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큼니다.

최영남: 어쩔 수 없어!! 지금 저 녀석들 이러면서도
계속 남하하고 있다. 지금 놈들의 목적은
우리와의 싸움이 아니야!! 부산에 상륙하는 것이
놈들의 목적이다.

동국: (벽을 주먹으로 치며)젠장!

최영남: (장병들을 보며) 속도가 우리의 무기다!!
속력을 최고속력으로 높인다!! 18노트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적의 길목을 앞질러 막는다!!

S#138 백두산 함

물살을 가르는 백두산 함의 속도가 빨라진다.
조금씩 적선을 앞지르기 시작한다.

S#139 적선

당황하는 적선 위의 인민군들.
중화기들을 배 위에 빠르게 배치하며 백두산 함을 겨냥한다.

S#140 백두산 함

적선을 앞지른 백두산 함 옆으로 커브를 틀며 적선의 앞길을 막는다.
이제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진 두 척의 함선.
위장한 인민군과 백두산 함 위의 수병 서로 눈을 마주친다.
갑판 위의 수병, 지척으로 가까워진 적의 모습에 침을 삼키며 긴장한다.

S#141 적선

불을 뿜는 적선 위의 중화기들.
기관총과 여러 문의 85밀리 포 등이 산발적으로 불을 뿜는다.

S#142 백두산 함/ 기관실

적의 공격에 심하게 흔들리는 백두산함의 기관실.
기관실의 수병들 넘어지고 구르고
기관실의 장비들은 바닥에 사정없이 굴러 떨어진다.

S#143 적선

적선위의 인민군들 자신들의 공격에 연기가 자욱해진 백두산 함을 주시한다.
그때 백두산함의 앞에서 연기를 뚫고 불빛이 반짝 한다.
잠시 후 적선의 중앙을 강타하며 큰 폭발음이 일어난다.
갑판 위에 앉아있던 인민군들은 3인치포의 위력에 바다에 빠지고
온 몸이 불탄다.
그리고 연이어 배의 앞부분에 백두산함의 함포가 작렬한다.
앞의 폭발보다 더 큰 폭발이 일어나며 적선에 큰 불이 붙기 시작한다.

S#144 백두산 함/ 조타실

환호성을 지르는 백두산함의 장병들

성호: (주먹으로 손바닥을 치며) 좋았어!!

다들 기뻐하는 가운데 동국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다리가 조금 씩 떨리며 입술이 떨린다..
동국의 눈빛이 점점 불안해진다.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손으로 떨리는 자신의 다리를 꼭 움켜쥐는 동국.

S#145 백두산 함/ 갑판

3인치포의 사수와 부사수, 탄약수들 정신없이 사격을 하고 있다.
가까운 거리라 두발에 한발정도로 명중한다.
어느새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다.
적선에 포탄이 작렬할 때 마다 큰 폭발음과 함께
인민군들이 바다 속으로 떨어진다.
신중하게 포탄이 한발 이동되어 포탑 안에 장전된다.
신중히 적선을 겨냥하고
사격하는 순간 갑자기 발사가 되지 않는다.
당황하는 사수

사수: 왜.. 왜 이래 이거 갑자기...

재차 방아쇠를 당기는 사수.
하지만 철컥 거리며 포탄이 둔탁하게 걸리는 소리만 날 뿐 발사 되지 않는다.
옆에 있는 부사수와 탄약수들도 당황한다.

사수: 박 일병!! 이거 빨리 열어봐!!

포탑에서 내려와 부사수와 함께 함포를 개방하는 사수.
고장원인을 찾으려 하고 있다.

비를 맞으며 당황하고 있는 3인치포의 사수와 부사수
함포를 고치다가 고개를 돌려 적선을 보는 3인치 포의 사수
사수의 동공이 커진다. 화면이 느려지면서 적선의 85밀리포탄이 눈앞에 보인다.
화면이 원래상태로 돌아오면서 큰 폭발음과 함께
적의 포탄이 3인치 포 뒤의 기관실에 적중한다.

S#146 백두산 함/ 기관실
폭발음과 함께 기관실이 불길에 휩싸인다.
불 길 속으로 사라지는 기관실의 병사들

S#147 백두산 함/ 조타실
기관실 위에 있는 조타실이 폭발음과 함께 바닥이
폭발하며 장병들이 튕겨나간다.
동국과 성호 그리고 기타 수병들이 조타실 밖으로 튕겨나간다.

S#148 백두산 함
멀리서 백두산 함의 불타는 모습이 보인다.
단 한발에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는 백두산 함의 모습.

S#149 백두산 함/ 갑판
갑판 위에 쓰러져 있던 동국이 천천히 눈을 뜬다.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키는 동국. 주위를 둘러보니
이리저리 정신을 잃고 쓰러진 장병들이 많이 보인다.
참담한 모습의 백두산 함의 갑판 비틀거리며 갑판 위를 돌아다닌다.
갑판 위가 피로 홍건하다.
피가 흘러 배 밖으로 흘러내린다. 갑판을 한 바퀴 도는 동국.
모퉁이를 돌아 성호를 발견한다. 성호에게로 다가가는 동국.
엎드려 있는 성호, 동국이 다가가 성호를 흔들며 그를 깨운다.

동국: 야...! 이성호!! 이성호!! 정신차려! 일어나봐!!

동국의 부름에 눈을 뜨는 성호.
성호가 눈을 뜨자 동국 기뻐한다.

성호 여기가 지옥이나 천국은 아니지??
 죽는 줄 알았네... 진짜...

동국 이런 상황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성호의 모습에 피식 웃는다.

아직도 주위에는 적들의 총탄이 빗발치고 있다.

동국: (성호를 어깨에 부축하며)자! 일어나!! 여기는 위험해!!
안으로 들어가자!!

성호를 부축해서 일으키려는 동국.

무엇인가를 발견하고는 놀란다.

성호의 내장이 밖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동국이 놀라는 모습에
성호도 자신의 내장을 보고는 다시 동국을 바라본다.

성호: 아,..이제 도저히 무리일 것 같은데...

말을 끝낸 성호 앞으로 꼬꾸라져 쓰러진다.

성호가 쓰러지는 모습에 충격 받는 표정의 동국.

넋을 잃고 온몸을 떨면서 앉아있다.

O.L.

S#150 태평양의 바다(밤)

전쟁의 참혹함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동국.

불타는 사람들.

고통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병사들.

불타는 깃대에 깔리는 형의 얼굴.

전함 위에 누워 피 흘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

F.O.

S#151 백두산 함/ 갑판

F.I.

하늘에서 내리는 빗발이 더 강해진다.

넋을 놓고 있는 동국.

동국의 앞에는 비를 맞으며 차갑게 식어가는 성호의 주검이 놓여있다.

하나 둘 씩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는 갑판 위의 장병들.

S#152 부산/ 동국엄마의 국밥가게(밤)

동국엄마가 손님들에게 국밥을 서빙하고 있다.

오늘도 웃음을 얼굴에 머금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조용한 모습으로 가게구석에서 머리를 기대고 자고 있는 동철.

손님들과 이야기 하던 동국엄마.

비가 오는 걸 보고 가게 밖으로 나간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보는 동국엄마.

S#153 뉴저지의 음식점(낮)

음식점 뒤에서 설거지를 하는 데이빗.
음식점 주인의 심한 잔소리에 그제 웃으며 넘어간다.
설거지를 하면서 싱크대 앞에 붙여놓은
작은 쪽지를 읽으며 입으로 반복하며 계속 중얼거린다.
읽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지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바지 뒷주머니에서 작은 책을 꺼내서 찾아본다.

S#154 뉴저지의 거리 (낮)

뉴저지의 거리를 걷고 있는 헤일리.
언제나처럼 밝고 명랑해 보이는 얼굴이다.
길에서 파는 귀여운 강아지를 들어올리고
강아지의 귀여운 모습에 명랑하게 웃는다.
인기척에 고개를 돌리는 헤일리.
얼굴에 함박웃음이 번진다.
동국이 반갑게 손을 흔들며 헤일리에게 다가온다.

S#155 백두산 함/ 갑판 (밤)

동국의 얼굴에 C.U. 된 상태에서 감고 있던 눈을 뜨는 동국.
주위를 둘러보는 동국.
아름다운 헤일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눈앞에는 처참한 백두산함의 갑판이 펼쳐져있다.
성호의 주검과 수병들의 주검.
위용을 자랑하던 백두산함도 심하게 망가진 상태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현실이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가슴주머니에서
헤일리의 사진을 꺼내는 동국.
사진 속 그녀는 밝게 웃고 있다.
결심한 듯 주머니에 다시 사진을 넣고는 일어서는 동국.
쫄쫄거리며 3인치 함포 옆으로 간다.
수병들이 고장원인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동국: 나와 봐!!
수병2: (물러나며)기능 고장의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발사가 되지 않습니다.

동국, 함포의 약실을 연다.

동국: 이 녀석에 대해선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약실을 연 상태에서 발로 함포를 마구 차는 동국.
수병들이 이 모습을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
쾅쾅 계속 발로 함포를 차더니 약실 안에서
검은 탄매가 뭉텅이로 쏟아져 나온다.
그 모습을 보자 발차기를 멈추는 동국.
잠시 숨을 돌리고는 수병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동국.

동국: (수병들을 보며)포탄을 준비해라!!
 모조리 바다에 쳐 넣어주자!

동국의 말에 수병들 함성을 지른다.
탄약수 부사수 사수 그 외에 수병들이
일사분란하게 새롭게 전투 준비를 한다.
적들도 계속해서 백두산 함에 기관총과 직사포 사격을 가한다.
갑판을 지나는 몇몇 수병들이 또 다시 적탄에 쓰러진다.
하지만 장병들 결전의 의지가 강한 모습이다.
탄약수들에 의해 포탄이 운반된다.
약실이 열리고 포탄이 삽입된다.
약실이 닫히고 3인치포의 좌우상하를 조절하는 레버가
수병들에 의해 요란하게 돌아간다.
동국 옆에서 수병들을 독려하며 명령을 내린다.

동국: (적선을 살피며) 좌측!! 좌측으로 계속!!계속!!

그 때, 3인치 포 앞에 적들의 포탄이 날아와 박힌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지는 동국과 3인치 포 주변의 수병들.
순간, 동국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비틀거리며 일어서는 동국과 장병들.
다들 고개를 숙이고 동국의 명령을 듣는다.

동국: 침착해!!기다려!! 아직 아니야!! 기다려!!

머리 위로 계속해서 빗발치는 적의 기관총세례.

동국: 조금 더!! 조금 더!!

동국의 말에 신중하게 적을 겨냥하는 사수 조금씩 적선이 정조준이 되어간다.
긴장하는 장병들 그리고 잠시 후 표적이 정조준에 걸린다.

동국: 발사!!

동국의 명령과 함께 굉음과 함께 불을 뿜는 3인치 포!
화면이 느려지며 포탄을 카메라가 따라간다. 완만한 곡선을 그리던 포탄이
점점 내려오며 적선과 가까워진다. 그리고 차츰 빠르게 적선과 가까워지더니
화면이 원상태가 되면서 적선의 하단부에 작렬하는 포탄!
적선 전체를 울리는 폭발음과 함께 밤을 환하게 밝히는 불꽃이 솟아난다.

S#156 적선

적선의 하단부가 포탄에 의해 박살이 난다.
그 곳으로 해수가 거침없이 밀려들어온다.
그 곳에 있던 인민군들은 물살에 휩쓸려 사라지고
배는 건잡을 수 없이 기운다.
배의 밑 부분에서 배 위로 겨우 빠져나오는 인민군.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보더니 눈이 커진다.
하늘에서 포탄 한발이 배 위로 날아온다.
쾅! 하는 폭발과 함께 배가 크게 기운다. 배가 기울면서 밑 부분부터 배가
쪼개지기 시작한다.

S#157 백두산 함/ 갑판

3인치포가 쉴 새 없이 불을 뿜는다. 모두들 계급을 떠나서
너나 할 것 없이 탄약을 운반하고 장전하고 발사한다.
발사되는 포탄마다 남김없이 적선에 적중한다.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뒤 쪽에서 일어서는 최영남.
적선의 침몰을 바라본다.
조금씩 바다 속으로 사라져가는 적선.
백두산함의 승조원들 적선의 침몰모습을 보며 환호한다.
동국도 수병들과 껴안으며 기쁨을 만끽한다.
동국을 껴안았던 수병 뭔가 이상한 느낌에 자신의 옷을 본다.
자신의 옷이 피에 흥건히 젖어있다.

놀라서 자신의 몸을 살피는데 이상이 없다.
그때 갑자기 비틀거리는 동국.
숨을 쉬기가 힘들어진다.
입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자신의 배를 만지는 동국
손에 새빨간 피가 묻어나온다.
동국의 몸이 피로 젖어있다.
뒤로 쓰러지는 동국.
수병들이 놀라며 부축한다.
최영남, 동국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는 놀라서 달려온다.
동국을 부축하는 최영남.
최영남에게 안겨있는 동국은 죽음을 앞둔 사람 같지 않게
편안해 보이는 표정이다.
자신을 보고 울고 있는 전우들을 보며 오히려 미소를 짓는다.
승전에도 불구하고 백두산 함이 온통 울음바다가 된다.
그 속에 동국의 표정은 아주 편안해 보인다.
F.O.

S#158 호보켄 부딿가(아침)

F.I.

혼자서 부딿가를 거닐고 있는 헤일리.
밝은 표정이지만 뭔가 슬퍼 보인다.
원래 백두산 함이 있던 자리에 서 있는 헤일리.
혼자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한다.
혼자 있는 헤일리에게 배불뚝이 직원이 다가온다.
백두산 함이 있는 곳을 보는 헤일리를 보고 배불뚝이 직원이 말을 건다.

배불뚝이직원: hey ma'am. where are you from?

자막: 아가씨, 어디서 왔죠?

헤일리: (웃으며) ummm,. I don't know...

자막: 글썄요... 모르겠네요..

배불뚝이직원: (웃으며) could I tell you one interesting story?

자막: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배불뚝이직원의 말에 그를 한번 바라보았다가 다시 바다를 바라보는 헤일리.

배불뚝이직원: you know~ korea war is over. Isn't it?
ye, may be it's short break time.
six millions of people dead and all infra destroyed...
People said Korea is land of hopeless... it's really sad story...
자막: 한국 전쟁이 끝난 거 알죠? 뭐 , 끝이 아니라
잠간의 휴식일지도 모르지만..
육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모든 것들은 파괴됐어요...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한국은 이제 희망이 없는 땅이라고..
정말 비극이죠?

헤일리: (바다를 보며)Yes, it's sad story...
자막: 네, 슬픈 이야기네요.

배불뚝이 직원: (미소 지으며) But may be story is not over here.
자막: 그런데... 이야기는 아마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헤일리, 배불뚝이 직원의 말에 고개를 돌리고 그를 본다.

배불뚝이 직원: (바다를 보며)I was saw all things to my eyes.
I Know the real Heroes!
So, story is not over.
country which live that heroes
just start now.
자막: 난 내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난 진짜 영웅들을 알아요!
그래서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 영웅들이 사는 나라라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헤일리, 배불뚝이 직원을 바라보다가 미소 짓는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헤일리.
바다에 꺼낸 것을 던진다.

헤일리: (던진 것을 바라보며) Good bye, Hero.

바다에 떠 있는 백두산 함을 배경으로 찍은 기념사진의 모습.
긴장한 인수단 장교들의 얼굴, 더욱 긴장한 최영남의 얼굴,
반만 나온 성호의 얼굴, 해맑게 웃고 있는 동국의 모습이 보인다.

물 위에 떠 있던 사진은 물을 먹으며 차츰 바다 속으로 사라진다. (F.O.)

#159 해군사령부/ 면접실 (S#30의 상황)

면접관들 세 명과 손원일이 앉아있고 맞은편에 긴장한 동국이 앉아있다.

손원일: (궁금한 듯) 꽤나 아팠을 것 같은데,.. 공부도 다 마치지 못했고.. 전쟁 중에 다친 경험도 있고, 사연이 많은 것 같군, 자네 꿈이 뭐가?

동국: (고민하다가)꼭 다시 찾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원일, 동국의 말이 흥미롭다는 듯 주목한다.

동국: 전 언제나 난 힘이 없다며, 어쩔 수 없었다며,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며, 제 자신에게 스스로 말해왔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결국 그렇게 전 소중한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전, 전 용기가 없었습니다. 현실과 싸우려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다시 찾고 싶습니다. 현실과 싸울 용기를 찾고 싶습니다.

동국, 말을 이어가며 페이드아웃(F.O.)

검은 화면에 자막이 천천히 떠오른다.

대한해협 해전을 이끈 최 함장에게 정부는 최고 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미국 정부도 1951년 7월 최 함장에게 은성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대한해협 전사자들은 진해에 묻혔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 동작동 국립묘지로 이장되었다. 백두산 함은 대한해협해전 이후에도 인천 상륙작전 등 수많은 전투에서 활약했고 휴전 이후에도 해상 경계 등에 투입되었다가 새로 도입된 신형 함정에게 그 임무를 인계하고 1959년 7월1일 진해 기지에서 조용히 퇴역하였다. 백두산함의 마스트와 함포는 현재 해군사관학교에 보존되어있다.

데이빗은 버지니아 주립 대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조인이 되었다.

-END-